

# 碩士學位論文

## 濟州地域 經濟 및 金融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金恩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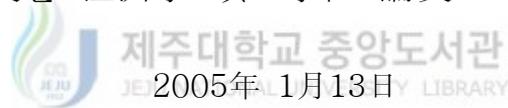
2005年 1月 13日

# 濟州地域 經濟 및 金融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姜起春

이 論文을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金恩惠의 經濟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 2 장 지역경제와 금융의 관계	
제 1 절 경제발전과 금융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제 2 절 지역신용경로에 관한 이론적 배경.....	6
제 3 장 지역 경제 및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지역 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9
1. 지역 경제의 현황.....	9
2. 문제점.....	16
제 2 절 지역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18
1. 지역금융 현황.....	18
2. 제주지역 금융 현황.....	25
3. 지역금융 문제점.....	32
제 4 장 지역금융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VAR 모형 이용)	
제1절 지역별 금융과 실물경제와의 관계.....	35
1.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적 검정.....	36
2. 최적시차검정.....	40
3. 인과성 검정.....	41
4. 충격반응과 예측오차분산분해.....	43
제2절 제주지역 실물경제와 금융과의 관계.....	53
1.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적 검정.....	54
2. 인과성 검정.....	55
3. 충격반응과 예측오차분산분해.....	56
제 5 장 제주지역 경제 및 금융 활성화 방안	

제 1 절 경제 활성화 방안.....	61
1. 단기정책 방안.....	61
2. 중장기정책 방안.....	63
제 2 절 금융활성화 방안.....	65
1. 금융시스템 효율성 제고.....	65
2. 지역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전문화·차별화.....	67
제 6 장 결론.....	70
참고문헌.....	71
Summary.....	75
부록	
(표A-1) 지역별 GRDP (불변가격).....	i
(표A-2) 지역별 대출금.....	ii
(표A-3) 제주도 산업별 GRDP와 대출금.....	iii

## 표 목차

<표 3-1> 총량경제력의 수도권과 지방간 비교 : 2003년.....	10
<표 3-2> 총량경제력 구성지표의 시·도간 비교 : 2003년 .....	11
<표 3-3> 제주지역 총량경제력(2003년).....	12
<표 3-4> 제주지역 1인당 총량경제력(2003년).....	13
<표 3-5> 제주지역 1인당 총량경제력의 변화 추이 .....	13
<표 3-6> 제주 및 전국의 기간별 연평균 명목성장률.....	14
<표 3-7> 제주 및 전국의 연평균 명목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	15
<표 3-8> 제주의 산업구조 변화.....	16
<표 3-9> 총량경제력 변화 추이 .....	17
<표 3-10> 지역별 예금은행 예금 추이 .....	20
<표 3-11> 지역별 예금은행 대출금 추이.....	22
<표 3-12>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 추이.....	24
<표 3-13> 금융기관 점포수 추이.....	26
<표 3-14> 수신규모 변화 추이 .....	27
<표 3-15> 여신규모 변화 추이 .....	27
<표 3-16> 예대율 변화 추이.....	28
<표 3-17> 어음교환액 변화 추이.....	29
<표 3-18> 어음부도율 변화 추이.....	29
<표 3-19> 금융기관별 대출규모 추이.....	30
<표 3-20>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추이.....	31
<표 4-1> 지역별 대출금의 ADF 단위근 검정.....	38
<표 4-2> 지역별 불변GRDP의 ADF 단위근 검정.....	38
<표 4-3> 지역별 불변GRDP와 대출금의 요한슨 공적분 검정 .....	39
<표 4-4> 지역별 적정시차.....	41
<표 4-5> 인과성 검정.....	43
<표 4-6> 대출금의 예측오차 분산의 불변GRDP에 의한 설명비율.....	52
<표 4-7> 불변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	52
<표 4-8> 제주지역 산업별 GRDP의 ADF 단위근 검정 .....	54
<표 4-9> 제주지역 산업별 대출금의 ADF 단위근 검정 .....	54

<표 4-10> 제주지역 산업GRDP과 대출금의 요한슨 공적분 검정.....	54
<표 4-11> 인과성 검정.....	55
<표 4-12> 산업별 대출금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별 GRDP에 의한 설명 비율.....	60
<표 4-13> 산업별 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대출금에 의한 설명 비율.....	60
<표 5-1> 추진대책 분류 및 요약.....	61
<표 5-2> 제주지역의 주요 혁신역량지표(인구 만명당).....	64
<표 5-3> 신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추진사업 및 기대효과.....	64

## 그림 목차

<그림 4-1> 전국의 충격반응.....	44
<그림 4-2> 서울지역의 충격반응.....	44
<그림 4-3> 부산지역의 충격반응.....	45
<그림 4-4> 대구지역의 충격반응.....	45
<그림 4-5> 인천지역의 충격반응.....	46
<그림 4-6> 광주지역의 충격반응.....	46
<그림 4-7> 대전지역의 충격반응.....	47
<그림 4-8> 경기지역의 충격반응.....	47
<그림 4-9> 강원지역의 충격반응.....	48
<그림 4-10> 충북지역의 충격반응.....	48
<그림 4-11> 충남지역의 충격반응.....	49
<그림 4-12> 전북지역의 충격반응.....	49
<그림 4-13> 전남지역의 충격반응.....	50
<그림 4-14> 경북지역의 충격반응.....	50
<그림 4-15> 경남지역의 충격반응.....	51
<그림 4-16> 제주지역의 충격반응.....	51
<그림 4-17> 농림어업부문의 충격반응.....	56
<그림 4-18> 제조업부문의 충격반응.....	56
<그림 4-19> 건설업부문의 충격반응.....	57
<그림 4-2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부문의 충격반응.....	57
<그림 4-21> 전기·가스·수도업부문의 충격반응.....	58
<그림 4-22> 금융업부문의 충격반응.....	58
<그림 4-23> 운수업부문의 충격반응.....	59
<그림 4-24> 기타 서비스업부문의 충격반응.....	5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역경제모형에 지역금융 또는 신용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경제가 개방되어 자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역 고유의 통화정책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지역경제에 있어 통화 및 금융의 중요성을 경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발표된 논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의 발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sup>1)</sup> 특히 Bias(1992)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금융시장이 지역에 따라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금융의 발달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Faini, Galli and Giannini(1993)도 남부 이태리의 경제가 북부에 비해 낙후된 원인을 금융 중개의 비효율성에서 찾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 경제에서는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문제가 상존하여 각종 국가정책 수립과 추진에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IMF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비하여 지방경제의 위축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도 지역 간의 경제상황의 명암이 서로 엇갈려 나타나고 있다.

지방경제의 위축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IMF 금융위기 이후 각종 지표들에서 소득 계층 및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경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여 과연 무엇이 문제시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그에 근거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라 지방 금융기관이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지방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지 않아 지

1) Dow and Rodriguez - Fuentes(1997)에 개관한 논문에 보면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의 발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소재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역금융시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설득력을 갖게 되는데 금융시장이 지역단위로 완전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법제도적인 이유<sup>2)</sup> 등으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독립성이 어느 정도는 성립한다. 금융시장의 지역성이 존재하면 특정지역의 금융이 그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커지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금융의 발달수준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금융의 공급크기가 지역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에 화폐경제학자들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있어서 신용경로를 중시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지역단위의 신용경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신용중시 견해에서 주장하듯이 신용공급의 크기가 경제활동 수준을 결정하고 지역금융시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지역별 신용경로가 나타나게 된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현실을 볼 때, 지역 금융에 대한 논의는 구태의연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역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에도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방금융기관의 통폐합이 가속화되어 지역 금융이 침체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장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편중현상의 심화로 각 지역의 균형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금융은 지역산업에 대한 유동성 창출 창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금융 서비스의 수요자는 중소기업, 가게 등 서민층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지역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지역금융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제주지역의 산업별 대출현황이 산업별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를 금융시장의 제도적 단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각종 규제에 의해 지방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은 주로 특정지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게 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우선 제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지방금융과 지방경제의 발전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 되어온 이론과 실증연구를 소개하였다.

제 3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지방 금융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방경제현황을 살펴본 후 제주지역 경제 및 금융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제주지역 경제와 금융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았다.

제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지방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정도를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전국을 15개 시·도(울산은 제외하고)로 나누고 표본기간은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지역별 실물경제와 금융에 대한 관계를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와 금융에 대한 관계를 실증분석을 했다. 자료는 산업별 생산과 산업별 대출현황을 VAR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제 5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토대로 제주지역 경제 및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이 지역 경제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 6장은 지금까지 연구해 온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다.

## 제 2 장 지역경제와 금융의 관계

### 제 1 절 경제발전과 금융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금융부문의 발달은 실물부문의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H. T. Patrick(1966)에 의하면 금융발진이 실물경제를 선도할 수 있고 실물경제를 추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금융발전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실물경제의 발전에 부응하여 금융이 발전한다는 것인데 이를 수요추종이라고 한다.

수요추종론에 의하면 실물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저축자와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이 효율적으로 동원되고 투자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소요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실물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진국의 경우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부문으로 전통적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경제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발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 S. Shaw(1973)와 R. I. Mckinnon(1973)은 그들의 저서에서 금융의 심화론, 즉 금융발전은 자본축적을 촉진함으로써 저개발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이론은 금융의 공급선도론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금융자산의 대GDP의 비율로 추산되는 금융의 심화는 경제 내 금융자산의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저축의 증대를 유발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Shaw와 Mckinnon의 이론은 금융자산의 축적이 자본축적을 저해함으로써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경제에서 성장둔화를 면치 못한다는 종전의 이론에 볼 때 혁명적이라 할 수 있으며 금융의 심화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물가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제발전과는 상반된다 하겠다.

G. Ranis는 선택된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금융제도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Ranis에 의하면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1차 수입대체(primary import substitution)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은 국내의 투자재원을 수입대체 산업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러한 투자재원의 동원을 가능케 하기 위하

여 금융과 통화신용정책을 정책수단으로 이용하게 되고 금융부문은 지극히 억압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대체기가 지나고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원활히 이루어져서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국제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경제가 수출대체기(export substitution period)에 접어들게 되면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부문에서 자율화와 자유화가 강조되게 된다. 이 시기에는 금융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서 금융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금융발달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실증연구도 발표되었다. 특히 King and Levine(1993)은 80여 개국의 자료를 분석하여 금융발달이 경제발전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Faini, Galli, and Giannini(1993)는 대규모의 소득 이전정책과 공공투자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남부지역의 경제가 북부지역에 비해 낙후된 원인은 금융중개제도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재운(1996)은 한국 11개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지역금융심화지표 사이에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며, 현재의 금융발달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미래의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지역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 1인당 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p 높은 지역의 1인당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0.19%p 높다는 추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융발달지표와 경제성장지표 사이에 동시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양 지표 사이의 인과성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발달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Koo and Kim (1999)은 금융심화가 진전될수록 제조업 생산효율성이 커져 성장이 유리해진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의 각 지역의 제조업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각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이 금융중개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uiso, Sapienza, and Zingales(2001)는 이태리의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융발달지역에서는 창업비용이 낮으며 창업자의 연령이 낮아 기업가의 평균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기업수의 인구에 대한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금융이 가장 발달한 지역의 1인당 GRDP증가율은 가장 후진적인 지역에 비해 연 1%p가량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금융의 발달수준이 높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격차를 줄이려면 낙후지역에 금융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제2절 지역신용경로에 관한 이론적 배경

통화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전통적인 통화중시 견해(money view)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본원통화량을 축소하면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의 상승이 나타나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며 산출량이 감소되는 과정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전통적인 통화중시 견해 외에 신용중시 견해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거래에는 본질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가 상존한다. 즉 자금의 상환 능력 및 의향에 관해 자금 공급자인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에 비해 열위의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자금의 공급자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자에게 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 즉 자금 수요자가 시장이자율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공여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를 신용할당(credit rationing)현상이라고 한다. 신용할당이 만연한 경제에서는 금융중개의 크기가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금융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는 기업이나 가계일수록 그 경제활동이 금융공급량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금융제약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감소가 투자의 감소 또는 생산의 위축에 직결되며, 금융제약을 받고 있는 가계는 현재소득 이상의 소비가 어려우므로 현재소득에 따라 소비하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Kashyap and Stein(1994, 이하 KS)은 통화정책의 신용경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적어도 일부의 차입자에게는 금융중개와 공개시장의 채권이 완전대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대출 외의 자본조달방법에 제약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의 변화를 통해 은행이 중개하는 금융의 크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금은행은 본원통화 외에 적절한 자금조달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셋째, 어떤 형태로든지 가격의 불완전조정 현상이 존재하여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신용경로가 지역경제 단위에서 성립하려면 KS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 내 가계,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해야 한다. 즉 지역 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 역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조달방법에 제약이 있어야 한다.

즉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출여력이 줄어들면 타 지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야 한다. 셋째, 가격의 불완전현상이 존재해야 한다.

지역신용경로(regional credit channel)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대한 검정과정이 필요하다. 초창기 연구로는 Dow(1987)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은행이 신용창출에 실패하면 지역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신용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다시 신용공급이 감소하는 누적적 과정(cumulative process)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Samolyk(1994)는 신용중시 견해의 타당성을 지역경제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미국은 오랫동안 규제에 의해 다른 주에 은행 지점을 개설하지 못하였으므로 은행체제가 주별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다. 금융이 지역별로 분리된 경제에서는 지역의 금융상황이 은행 의존적인 차입자의 외부자금 조달능력을 결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행의 성과와 지역경제의 성과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Samolyk은 일정지역 은행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금융공급이 감소하여 실물경제의 성과가 부실해짐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즉 은행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다른 금융조달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중개하는 금융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서 대출 의존적인 기업의 생산이 위축된다. 미국의 주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수익여신비율이 높은 주일수록 신용량의 변동이 산출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한 Hanson and Waller(1996)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금융제약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을 착안하여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신용량의 변동에 대해 산출량이 더 크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Samolyk의 연구는 KS의 둘째 조건에 대한 검정이며, Hanson and Waller의 연구는 첫째 조건에 대한 검정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현의(1995)는 본원통화의 공급이 감소하였을 때 중소형 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출공급이 대규모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경우에도 지역신용경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KS의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검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신용경로를 분석한 구재운·김희순(2001)은 서울을 제외한 10개 지역의 1970~1997년의 생산 및 금융 자료로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은 금융시장의 지역적 분리성이 매우 낮아 지역신용경로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는 달리 지역신용경로가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대출의존도로 측정된 금융제약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일수록 금융이 실물경제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경제에서도 KS의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한다.

지역신용경로의 존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의 효과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정책이 특정지역에서는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통화중시견해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다. 둘째, 특정지역의 금융상황이 나빠져 금융 제약이 강해지면 부족한 금융공급에 따라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실물경제의 침체는 금융의 침체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통화정책보다 특정지역에 신용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요구될 수 있다.



## 제 3 장 지역 경제 및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제 1 절 지역 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IMF 경제위기 이후 국내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방의 경제적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투자 축소로 인해 지역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던 기업들이 퇴출되고 종래에 지방경제의 성장을 떠받쳐 온 지방 건설업과 유통업이 극심한 불황에 빠지면서 지방 실물경제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경쟁에 입각한 시장원리와 새로운 세계기준에 의한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 시책은 지역금융기관의 잇단 퇴출을 가져왔으며, 이는 지방에서의 금융 중개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주지역은 외환위기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소비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전국의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즉, 도내 최대산업인 관광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 수 증가율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간 상관관계수가 매우 높아 국내 경기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제주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먼저 구조조정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간의 총량경제력을 비교해보면서 지역 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과 최근의 제주경제를 전국과 비교해 봄으로써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제주경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역 경제의 현황

##### 1) 총량경제력의 지역 간 비교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실태분석에서는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동 지표는 지역의 생산부문만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금융이나 지역 노동 등 다른 부문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2001)

은 지역경제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총량경제력이라는 지표 및 1인당 총량경제력 지표를 개발하였다. 총량경제력 지표<sup>3)</sup>란 지역경제의 양적인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산업구조, 금융활동,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

먼저 총량 경제력을 수도권과 지방간에 서로 비교해 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1> 총량경제력의 수도권과 지방간 비교 : 2003년

구분	인구 집중도 (A, %)	총량 경제력(%)									B/A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 고용	도소매 업고용	금융 거래	경제활동 인구	수출	조세수입	합계	평균(B)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0.0	100.0	1.00
수도권	46.7	47.8	46.6	48.4	67.2	47.3	39.1	71.8	368.2	52.6	1.13
지방	53.3	52.2	53.4	51.6	32.8	52.7	60.9	28.2	331.8	47.4	0.89

주 :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제조업 고용기회는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서 기준, 도.소매업 고용에는 음식.숙박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거래규모는 예금액과 대출액의 합계 기준이고, 조세수입은 국세(직접세)와 지방세의 합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04. 4. 지역 경제 동향

국세청 국세 통계연보 (홈페이지)

수도권의 총량 경제력이 지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세 직접세수와 지방세수의 71.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의 67.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비해 지방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60.9%, 제조업 고용기회의 53.4%, GRDP의 52.2%를 차지하여 산업생산과 수출이 다른 경제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높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고소득획득기회, 금융기능 등 생산지원서비스의 경제활동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우리나라 지역경제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반면 <표 3-2>를 보면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의 경우는 제조업 고용기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총량 경제력 구성지표가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남권

$$3) C_i = \frac{1}{N} \sum_j^N \left( \frac{t_{ij}}{T_j} \times 100 \right)$$

( $C_i$  = 지역별 총량경제력,  $T_j$  : 부문 j의 전국합계,  $t_{ij}$  : 부문 j의 i지역 입지수, N : 부문수)

에서도 대구, 부산의 경우 도소매업 및 고용기회를 제외하면 모든 지표들이 낮은 상태이다. 충청권에서도 대전의 경우는 수출에서, 그리고 충북의 경우는 금융·재정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2003년 우리나라 지역경제 상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고소득기회와 금융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생산기능이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업본사 및 고소득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기인하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각종 행정, 정보, 기업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온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에서도 소득·금융기회의 서울집중, 제조업 고용기회의 인천·경기 집중이라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주변 인천·경기지역은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도시의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거점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도시의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생활서비스의 소비지로서 역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추 관리 기능의 서울 종속성이 심화되어 온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넷째, 영남권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부산·대구 등 대도시들이 중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기엔 취약하며, 충청권의 경우 생산기반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소득·금융 등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도권 의존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호남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제기반이 허약한 실정이다.

다섯째, 제주도의 경우 도소매업 고용기회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부문에서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인구 비중에 대비한 총량경제력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 총량경제력 구성지표의 시·도간 비교 : 2003년

구분	인구집중도	지역내총생산	제조업고용	도소매업고용	금융거래	경제활동인구	수출	조세수입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21.1	21.9	10.7	27.6	47.7	21.8	15.9	50.0
부산	7.8	6.1	6.6	8.6	6.7	7.7	2.3	5.1
대구	5.3	3.5	4.8	7.9	4.3	5.3	1.6	2.8

인천	5.4	4.9	7.7	4.5	4.2	5.4	3.5	3.6
광주	3.0	2.3	1.9	3.1	2.3	2.7	2.2	1.4
대전	3.0	2.4	1.3	3.0	2.4	2.9	0.6	2.0
울산	2.2	4.9	4.9	2.0	1.3	2.1	14.9	1.4
경기	20.2	21.0	28.2	16.3	15.3	20.1	19.7	18.2
강원	3.2	2.5	1.58	3.6	1.6	3.0	0.2	1.7
충북	3.2	3.5	3.9	2.9	1.4	3.0	2.5	1.5
충남	4.0	4.8	5.0	3.3	1.9	4.1	9.3	1.9
전북	4.0	3.2	2.6	3.4	2.0	3.8	1.2	1.5
전남	4.2	4.6	2.6	3.6	1.7	4.4	4.0	1.5
경북	5.8	6.7	7.8	5.0	2.6	6.2	10.8	3.1
경남	6.4	6.9	10.4	5.9	4.0	6.3	10.7	3.6
제주	1.1	0.9	0.2	1.5	0.8	1.2	0.0	0.7
변이계수	0.92	0.99	1.11	1.01	1.78	0.92	1.00	1.91

주 :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제조업 고용기회는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서 기준, 도.소매업 고용에는 음식.숙박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 거래규모는 예금액과 대출액의 합계 기준이고, 조세수입은 국세(직접세)와 지방세의 합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04. 4. 지역 경제 동향

국세청 국세 통계연보 (홈페이지)



## 2) 제주의 지역경제 현황 : 거시수준(macro level)

<표 3-3>은 2003년 제주지역의 총량경제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소매업 고용기회 및 노동공급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부문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낮아 총량경제력 수준은 0.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지역의 인구비중인 1.1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수출과 제조업 고용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3-3> 제주지역 총량경제력(2003년)

구분	인구 집중도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 고용	도소매업 고용	금융거래	경제활동 인구	수출	조세수입	총량 경제력
전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	1.1	0.9	0.2	1.5	0.8	1.2	0	0.7	0.8

한편, 지역주민 개개인이 누리는 질적 차원의 경제수준 즉, 지역경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1인당 총량경제력으로 총량경제력을 구성하는 각 지표를 1인당 지표로 측정하는 것이다.

<표 3-4>는 2003년 제주지역의 1인당 총량경제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소매업의 고용기회 및 노동공급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는 별다른 경제력을 형성하지 못하여 1인당 총량경제력 수준은 68.9로 나타나 전국평균에 대비하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수출과 제조업 고용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3-4> 제주지역의 1인당 총량경제력(2003년)

구분	1인당 GRDP	제조업 고용 추적도	도소매업 고용 추적도	1인당 금융거래	경제활동 인구비율	1인당 수출액	1인당조 세수입	재정 자립도	1인당 총량 경제력
전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	83.0	15.2	133.9	67.8	110.0	2.7	61.1	77.8	68.9

또한 <표 3-5>는 제주지역 1인당 총량경제력의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5년 65.9이었던 1인당 총량경제력은 2003년에는 68.9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주지역은 경제의 양적인 규모에서 인구비중인 1.1이나 GRDP의 비중인 0.93에 미치지 못하여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표 3-5> 제주지역 1인당 총량경제력의 변화 추이

구분	1995	1997	1998	1999	2000	2003
전국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	65.9	67.8	69.3	67.5	66.8	68.9

### 3) 제주의 지역경제 현황 : 산업수준(industry level)

<표 3-6>을 보면, 제주 및 전국의 기간별 연평균 명목성장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전의 제주지역 전산업 명목성장률은 전국의 전산업 명목성장률보다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제주지역 전산업 명목성장률은 전국의 전산업 명목성장률보다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1986년-2003년 전 기간에 걸쳐 전국보다 높은 명목성장률을 보인 산업은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림어업 및 관광관련산업(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기타서비스업)의 명목성장률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 제주 및 전국의 기간별 연평균 명목성장률

(단위 : %, %p)

	제주		전국		제주-전국	
	86-97	98-03	86-97	98-03	86-97	98-03
전산업	16.2	5.1	15.6	6.3	0.6	-1.2
농림어업	11.4	-1.0	6.8	0	4.6	-1
광업	17.8	12.2	2.1	2.2	15.7	10
제조업	13.0	7.8	15.9	5.7	-2.9	2.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4.2	17.1	12.4	12.2	1.8	4.9
건설업	21.3	6.3	18.0	-23.6	3.3	29.9
도소매업	14.8	4.9	11.0	5.9	3.8	-1
숙박 및 음식점업	25.1	2.6	14.7	7.1	10.4	-4.5
운수업	16.5	3.8	14.8	5.8	1.7	-2
통신업	14.3	8.2	15.5	11.2	-1.2	-3
금융보험업	23.8	10.8	20.4	10.5	3.4	0.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9.5	6.4	21.4	6.7	-1.9	-0.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16.7	7.4	15.4	7.4	1.3	0
교육서비스업	14.9	7.6	16.1	7.5	-1.2	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5.6	9.2	15.4	9.5	0.2	-0.3
기타서비스업	22.5	6.3	17.8	6.3	4.7	0

한편, <표 3-7>에서는 제주 및 전국의 기간별 연평균 명목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1986년-2003년 전 기간에 걸쳐 전국보다 높은 명목성장률 기여율을 보인 산업은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관광관련산업의 명목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제주 및 전국의 연평균 명목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

(단위 : %, %p)

	제주		전국		제주-전국	
	86-97	98-03	86-97	98-03	86-97	98-03
합계	100	100	100	100	-	-
농림어업	20.2	-3.4	3.4	0.6	16.8	-4
광업	0.4	0.9	0.1	0.2	0.3	0.7
제조업	2.2	1.8	27.5	22.7	-25.3	-20.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0	4.2	1.7	3.8	-0.7	0.4
건설업	13.4	17.4	11.1	-16.8	2.3	34.2
도소매업	6.6	8.6	6.4	7.6	0.2	1
숙박 및 음식점업	8.9	7.9	2.7	3.8	6.2	4.1
운수업	5.9	5.9	4.5	3.6	1.4	2.3
통신업	1.8	3.3	2.0	3.3	-0.2	0
금융보험업	6.7	14.8	7.6	13.0	-0.9	1.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9.9	11.8	14.5	14.9	-4.6	-3.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7.7	10.8	5.7	6.8	2	4
교육서비스업	6.1	9.2	5.4	6.6	0.7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1	3.3	2.0	2.7	0.7	0.6
기타서비스업	7.1	3.7	3.9	3.4	0.3	0.3

지역의 산업구조는 산업별 명목생산액에 의해 파악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명목성장률 및 산업별 기여율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표 3-6>, <표 3-7>의 분석결과에 의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1986-2003년 전 기간에 걸쳐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산업은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관광관련산업은 증가한 산업과 감소한 산업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2003년 기준으로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이 전체의 81.5%를 차지하는 등 지역생산의 대부분이 양 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국의 산업구조와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국평균 수준보다 높으며 광공업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표 3-8> 제주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p)

	1985	1990	1995	2000	2003	85-03년 중 변화
합계	100	100	100	100	100	-
농림어업	38.7	32.3	28.5	21.3	16.2	-22.5
광업	0.3	0.3	0.3	0.3	0.5	0.2
제조업	3.4	3.6	2.7	3.0	2.8	-0.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	1.0	1.0	1.2	1.9	0.7
건설업	7.5	13.0	10.9	12.3	13.3	5.8
도소매업	7.9	6.9	6.5	6.3	6.7	-1.2
숙박 및 음식점업	3.3	5.9	7.5	8.0	6.9	3.6
운수업	5.7	4.5	6.0	5.9	5.4	-0.3
통신업	2.3	2.3	1.8	1.8	2.2	-0.1
금융보험업	2.9	3.7	5.2	6.4	8.4	5.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6.7	6.3	8.7	10.2	10.1	3.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7.3	6.6	6.9	8.1	8.7	1.4
교육서비스업	7.1	6.6	6.1	6.4	7.2	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3	1.9	1.9	3.0	2.7	0.4
기타서비스업	3.5	5.1	5.9	5.8	7.0	3.5

## 2. 문제점

### 1) 지역경제의 문제점

<표 3-9>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주요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그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 고소득기회, 금융활동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소득과 금융·재정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제조업 생산기능은 지방으로 확산되어 지방경제가 공장형 생산 활동 중심의 구조로 더욱 고착화됨으로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3-9> 총량경제력 변화추이

구분	총량경제력(%)						총량경제력 변화추이(%)					
	1995	1997	1998	1999	2000	2003	1995	1997	1998	1999	2000	2003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51.6	51.3	52.2	52.2	52.6	52.6	100.0	99.3	101.0	101.0	101.9	101.9
지방	48.4	48.7	47.8	47.8	47.4	47.4	100.0	100.7	98.8	98.8	98.0	98.0

주 : 총량경제력은 전국에 대한 GRDP, 제조업 종사자수,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수, 경제활동인구,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 수출액, 조세수입(직접세+지방세)의 분담비중을 평균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지역경제동향 2004. 4. / 지역통계연보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이와 같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의 요인 중 하나는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 시장에서 퇴출 또한 합병된 11개의 국내 은행 중에서 6개가 지역은행이었으며, 종금사의 경우 퇴출된 16개 회사 중 12개 회사, 생보사의 경우 퇴출 4개 회사 중 3개 회사, 투신사의 경우 퇴출된 2개 회사 모두가 지방에 소재한 회사였다. 금융 구조 조정과정에서 전국단위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부실화 정도가 심해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부가 구제하는 형식을 취한 반면, 지방의 금융기관들은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통폐합함으로써 지역의 금융기관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면이 없지 않다.

그 결과 지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지역민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며 지방에서 금융 중개 기능 약화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도 지방 중소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금융활동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2) 제주 경제의 문제점

감귤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제주 경제는 불안정한 성장을 보여 오고 있는데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한 제주 GRDP의 1986-2003년 중 연평균증가율은 12.6%로 전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명목성장률의 변동성은 8.15%로 전국보다 1.73%p 높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 GRDP의 1986-2003년 중 연평균증가율은 6.23%로 전국보다 0.7%p 낮으나 실질성장률의 변동성은 6.42%로 전국보다 1.53%p 높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물가, 고용, 생산, 자금사정 등의 경제상황에 느끼는 고통지수(Local Economic Misery Index)를 살펴보면 제주의 경우 4위에서 16위까지 연도별로 기복이

매우 심하여 경제가 불안정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제주경제는 1990년대 들어 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보이며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명목 가격으로 계산한 제주 GRDP의 1997-2003년 중 연평균증가율은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0.96%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주 경제의 특징은 경제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되지 않는 규모의 영세성, 감골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호황과 불황의 차이가 나는 불안정한 경제성장,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보이는 저성장성 또는 역동성 상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제주지역은 청정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농림어업 및 관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실정인데 도내 제조업이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3.4%에 불과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는 도내시장이 협소하고 높은 유통비용으로 인해 전국시장 접근이 불리하여 여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의 경우 제조업을 세분하여 업종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동향분석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제주지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말에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불과하나 총산출액은 9.3%로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 산업비중에 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도내에서 제조업의 위상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제2절 지역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1. 지역금융 현황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 9월까지 157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크게 변모하였다. 특히 은행산업은 부실 은행을 우량 은행에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부채가 자본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해 주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리해 주면서 은행자산의 건전성을 높이는 등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여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새로이 거듭나게 되었다. 한편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시키면서 은행의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은행수의 감소는 2001년 국민, 주택은행의 합병, 신한 금융지주 및 우리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은행산업에 불기 시작한 합병 및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대형화 추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997년 말 26개에 달하던 일반은행의 수(시중은행 16개 및 지방은행 10개)가 2002년에는 12개(시중은행 9개 및 지방은행 3개)로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이병윤(2003)의 연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 집중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과거의 관치금융 등 정부의 영향력이 많이 사라지고 은행들이 이윤을 내기 위한 경쟁도가 훨씬 높아 졌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에 있어서 수도권, 특히 서울로의 금융 집중과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지역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지역별 은행 수신규모의 변화추이



전체 은행 수신규모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은행권의 수신규모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연평균 10% 대의 성장을 보여 왔으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1998년 이후부터 다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중반 이후 퇴출은행의 처리가 마무리되고 대우사태 등으로 투신사의 수익증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면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 수신고 증가가 가속화 되었다.

지역별로는 <표 3-10>에 나타나듯이 예금은행 수신고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수신 비중이 1997년 약 49%에서 2004년 약 50%로 수도권의 비중이 약 66%에서 약 68%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지방의 경우 수신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영남권의 비중이 약 21%에서 약 18%로 하락하여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으로 수신고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은 우선 은행의 퇴출이 지방은행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에 점포를 많이 두고 있는

지방은행의 퇴출과 피합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에서의 수신규모가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은행불사 신화가 깨어짐에 따라 수신고가 상대적으로 우량은행에 몰리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량은행이 주로 입지해 있는 서울로 수신고가 몰리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표 3-10> 지역별 예금은행 예금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4
전국	154,136 (100)	181,724 (100)	198,197 (100)	251,795 (100)	323,411 (100)	404,661 (100)	455,631 (100)	540,762 (100)
서울	76,029 (49.3)	89,490 (49.2)	96,832 (48.9)	126,275 (50.2)	169,420 (52.4)	209,820 (51.9)	234,525 (51.5)	271,588 (50.2)
부산	11,884 (7.7)	13,764 (7.6)	15,167 (7.7)	18,477 (7.3)	22,866 (7.1)	28,233 (7.0)	30,704 (6.7)	34,245 (6.3)
대구	7,821 (5.1)	9,296 (5.1)	9,751 (4.9)	11,573 (4.6)	14,413 (4.5)	18,233 (4.5)	19,358 (4.2)	22,296 (4.1)
인천	6,036 (3.9)	6,875 (3.8)	7,618 (3.8)	9,214 (3.7)	10,880 (3.4)	13,987 (3.5)	16,266 (3.6)	19,067 (3.5)
광주	3,362 (2.2)	4,134 (2.3)	4,177 (2.1)	6,229 (2.5)	7,682 (2.4)	9,344 (2.3)	10,618 (2.3)	11,492 (2.1)
대전	3,388 (2.2)	3,899 (2.1)	4,348 (2.2)	6,332 (2.5)	7,865 (2.4)	10,063 (2.5)	12,560 (2.8)	14,449 (2.7)
울산	-	-	2,532 (1.3)	3,077 (1.2)	3,706 (1.1)	4,536 (1.1)	5,348 (1.2)	7,236 (1.3)
경기	17,739 (11.5)	22,149 (12.2)	25,413 (12.8)	30,984 (12.3)	39,454 (12.3)	51,506 (12.7)	60,149 (13.2)	76,795 (14.2)
강원	2,720 (1.8)	3,118 (1.7)	3,389 (1.7)	4,155 (1.7)	5,057 (1.6)	5,980 (1.5)	6,600 (1.4)	8,355 (1.5)
충북	2,306 (1.5)	2,713 (1.5)	3,065 (1.5)	3,906 (1.6)	4,548 (1.4)	5,871 (1.5)	6,303 (1.4)	7,480 (1.4)
충남	2,642 (1.7)	3,176 (1.7)	3,535 (1.8)	4,059 (1.6)	4,985 (1.5)	6,189 (1.5)	7,141 (1.6)	9,917 (1.8)
전북	3,375 (2.2)	3,720 (3.0)	4,220 (2.1)	5,322 (2.1)	6,347 (1.4)	7,957 (2.0)	8,846 (2.0)	10,348 (1.9)
전남	2,541 (1.6)	3,058 (1.7)	3,250 (1.6)	4,118 (1.6)	4,593 (1.4)	5,633 (1.4)	6,394 (1.4)	8,050 (1.5)

경북	4,647 (3.0)	5,329 (2.9)	5,708 (2.9)	6,894 (2.7)	8,004 (2.5)	10,063 (2.5)	11,401 (2.5)	14,182 (2.6)
경남	8,519 (5.5)	9,754 (5.4)	7,758 (3.9)	9,279 (3.7)	11,331 (3.5)	14,192 (3.5)	16,088 (3.5)	21,325 (3.9)
제주	1,099 (0.7)	1,248 (0.7)	1,432 (0.7)	1,902 (0.8)	2,260 (0.7)	2,980 (0.7)	3,240 (0.7)	3,903 (0.7)
대도시	108,520 (70.4)	127,459 (70.1)	140,425 (70.9)	181,176 (72.0)	236,831 (73.2)	294,210 (72.7)	329,469 (72.3)	380,372 (70.3)
도지역	45,616 (29.6)	54,265 (29.9)	57,771 (29.1)	70,618 (28.0)	86,580 (26.8)	110,451 (27.3)	126,162 (27.7)	160,355 (29.7)
수도권	99,803 (64.8)	118,515 (65.2)	129,863 (65.5)	166,473 (66.1)	219,755 (67.9)	275,394 (68.1)	310,940 (68.3)	367,449 (68.0)
지방	54,333 (35.2)	63,209 (34.8)	68,335 (34.5)	85,321 (33.9)	103,656 (32.1)	129,267 (32.1)	144,691 (31.7)	174,277 (32.2)
충청권	8,336 (5.4)	9,978 (5.4)	10,948 (5.5)	14,297 (5.7)	17,397 (5.4)	22,122 (5.5)	26,004 (5.7)	31,846 (5.9)
호남권	9,278 (6.0)	10,911 (6.0)	11,647 (5.9)	15,669 (6.2)	18,621 (5.8)	22,933 (5.7)	25,858 (5.7)	29,889 (5.5)
영남권	32,899 (21.3)	38,143 (21.0)	40,917 (20.6)	49,299 (19.6)	60,320 (18.7)	75,251 (18.6)	82,989 (18.2)	99,284 (18.4)
강원·제주	3,820 (2.5)	4,366 (2.4)	4,821 (2.4)	6,057 (2.4)	7,317 (2.3)	8,960 (2.2)	9,840 (2.1)	12,258 (2.3)

주:()내는 전국에 대한 분담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지역경제동향 (2004.4)

## 2) 지역별 은행여신규모의 변화추이

예금은행의 여신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꾸준한 성장을 구가했다. 그런데 외환위기 직후 여신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 여신규모가 감소한 기간은 1997년 말에서 1998년 말에 이르는데, 이 기간 동안에 5개 은행의 퇴출을 비롯한 은행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은행여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게 되었으며, 또한 BIS 비율<sup>4)</sup>이 은행 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가 됨에 따

4) BIS 비율이란 국제 은행에서 제시하는 비율로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산의 비율로 자기자본비율이라고도 한다.

· BIS 비율 = 자기자산 / 위험가중자산

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기업여신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1999년 이후 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은행의 여신 규모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여신 집중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의 여신 점유율이 1997년의 약 60%에서 2004년의 약 67%로 상승하여, 외환위기 이후 여신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수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지방의 경우, 전반적으로 집중이 축소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남권의 비중 축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신의 수도권 집중은 그 만큼 지방의 경제주체에 대한 신용위험이 더 커진 것과 지역경제가 수도권 지역보다 훨씬 더 위축된 경향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표 3-11> 지역별 예금은행대출금 추이

(단위 : 10억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4
전국	152,478 (100)	177,184 (100)	200,401 (100)	200,289 (100)	250,240 (100)	310,804 (100)	357,384 (100)	565,655 (100)
서울	68,415 (44.9)	78,820 (44.5)	89,012 (44.4)	91,918 (45.9)	113,002 (45.2)	147,874 (47.6)	159,420 (44.6)	243,961 (43.1)
부산	11,541 (7.6)	12,991 (7.3)	14,200 (7.1)	12,917 (6.4)	15,558 (6.2)	18,581 (6.0)	23,265 (6.5)	37,936 (7.0)
대구	9,229 (6.1)	10,778 (6.1)	11,756 (5.9)	11,190 (5.6)	12,846 (5.1)	18,581 (6.0)	23,265 (6.5)	24,529 (4.3)
인천	6,074 (4.0)	7,066 (4.0)	8,199 (4.1)	7,657 (3.8)	9,661 (3.9)	12,687 (4.1)	16,091 (4.5)	26,558 (4.7)
광주	3,937 (2.6)	4,512 (2.5)	4,859 (2.4)	4,859 (2.4)	6,417 (2.6)	6,860 (2.2)	8,165 (2.3)	12,686 (2.2)
대전	3,539 (2.3)	4,107 (2.3)	4,677 (2.3)	4,288 (2.1)	5,367 (2.1)	5,739 (1.8)	7,301 (2.0)	13,355 (2.4)
울산	-	-	2,487 (1.2)	2,344 (1.2)	3,015 (1.2)	3,598 (1.2)	4,364 (1.2)	7,398 (1.3)
경기	16,003 (10.5)	19,788 (11.2)	23,627 (11.8)	23,627 (11.8)	33,073 (13.2)	42,237 (13.6)	55,822 (15.6)	105,801 (18.7)
강원	2,895 (1.9)	3,291 (1.9)	3,809 (1.9)	3,782 (1.9)	4,659 (1.9)	5,350 (1.7)	6,007 (1.7)	8,395 (1.5)
충북	2,943	3,450	3,965	3,784	4,518	4,998	5,727	8,049

	(1.9)	(1.9)	(2.0)	(1.9)	(1.8)	(1.6)	(1.6)	(1.4)
충남	3,160 (2.1)	3,599 (2.0)	4,025 (2.0)	4,005 (2.0)	5,315 (2.1)	6,746 (2.2)	8,079 (2.3)	12,336 (2.2)
전북	4,432 (2.9)	5,143 (2.9)	5,844 (2.9)	5,757 (2.9)	6,932 (2.8)	7,577 (2.4)	8,582 (2.4)	11,373 (2.0)
전남	3,929 (2.6)	4,565 (2.6)	5,172 (2.6)	5,352 (2.7)	6,949 (2.8)	8,219 (2.6)	8,951 (2.5)	9,934 (1.8)
경북	9,694 (6.4)	11,343 (6.4)	10,008 (5.0)	10,052 (5.0)	12,337 (4.9)	13,863 (4.5)	10,899 (3.0)	14,085 (2.5)
경남	9,694 (6.4)	11,343 (6.4)	10,098 (5.0)	10,052 (5.0)	12,337 (4.9)	13,863 (4.5)	15,708 (4.4)	24,674 (4.4)
제주	1,217 (0.8)	1,436 (0.8)	1,722 (0.9)	1,817 (0.9)	2,355 (0.9)	2,754 (0.9)	3,208 (0.9)	4,586 (0.8)
대도시	102,707 (67.4)	118,274 (66.8)	135,190 (67.5)	135,208 (67.5)	165,902 (66.3)	209,442 (67.4)	234,402 (65.6)	366,423 (64.8)
도지역	49,771 (32.6)	58,911 (33.2)	65,211 (32.5)	65,081 (32.5)	84,338 (33.7)	101,362 (32.6)	122,983 (34.4)	194,646 (34.4)
수도권	90,495 (59.3)	105,674 (59.6)	120,838 (60.3)	123,202 (61.5)	155,736 (62.2)	202,797 (65.2)	231,261 (64.7)	376,321 (66.5)
지방	61,983 (40.7)	71,511 (40.7)	79,563 (39.7)	77,088 (38.5)	94,504 (37.8)	108,007 (34.8)	126,124 (35.3)	189,635 (33.5)
충청권	9,643 (6.3)	11,156 (6.3)	12,668 (6.3)	12,077 (6.0)	15,200 (6.1)	17,483 (5.6)	21,107 (5.9)	33,740 (6.0)
호남권	12,267 (8.0)	14,220 (8.0)	15,876 (7.9)	16,003 (8.0)	20,298 (8.1)	22,656 (7.3)	25,698 (7.2)	33,993 (6.0)
영남권	35,961 (23.6)	41,409 (23.4)	45,488 (22.7)	43,409 (21.7)	51,993 (20.8)	59,810 (19.2)	70,104 (19.6)	108,622 (19.2)
강원·제주	4,112 (2.7)	4,727 (2.7)	5,532 (2.8)	5,599 (2.8)	7,103 (2.8)	8,058 (2.6)	9,215 (2.6)	12,981 (2.3)

주 : ( )내는 전국에 대한 분담 비중임

자료 : 통계청 : 지역경제동향 ( 2004. 4)

### 3) 지역별 예대율의 변화추이

은행권의 예대율(預貸率)은 전체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표 3-12>에서 알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예대율이 100%대에 육박했으나 외

환위기 이후 예대율이 70%대로 떨어지고 있다. 예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우선 외환 위기 이후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신용위기 상황에서 여신을 보수적으로 운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연쇄도산 등의 여파로 기업금융이 위축되면서, 은행들이 여신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줄이면서 주택담보부 대출 등 가계에 대한 신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태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997년의 약 93%에서 2004년에는 약 105%로 12%p가 증가한 반면 지방의 경우는 1997년의 약 116%에서 2004년의 약 96%로 20%p가 감소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영남권과 충청권의 예대율은 80%대에 머물고 있다. 가오르는 추세고 호남권의 예대율은 100%대의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이를 지역금융의 역외유출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예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아직까지 수도권보다 지방의 예대율은 높기 때문이다. 그보다 예대율 감소는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인하여 은행들이 여신 운용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상당수의 지역기업들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여신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지방의 한계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이 여신을 제공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표 3-12>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4
전국	98.9	97.5	101.1	79.5	77.4	76.8	78.4	77.9
서울	90.0	88.1	91.9	72.8	66.7	70.5	68.0	57.4
부산	97.1	94.4	93.6	69.9	68.0	65.8	75.8	102.2
대구	118.0	115.9	120.6	96.7	89.1	77.4	82.0	99.1
인천	100.7	102.8	107.6	83.1	88.8	90.7	95.4	129.2
광주	116.2	109.1	116.3	78.6	83.5	73.4	76.9	99.1
대전	104.4	105.3	107.69	67.7	68.2	57.0	58.1	84.5
울산	-	-	98.2	76.2	82.3	79.3	80.3	95.1
경기	90.2	89.3	93.0	76.3	83.8	81.9	92.8	128.1
강원	106.4	105.5	112.4	91.0	32.1	88.7	91.0	87.8
충북	127.6	127.2	129.4	96.9	99.4	85.1	90.9	93.9
충남	119.6	113.3	113.8	98.7	106.6	109.0	113.1	108.8
전북	131.3	138.3	138.5	108.2	109.2	95.2	97.0	93.4
전남	154.6	149.3	159.2	130.0	151.3	145.9	140.0	100

경북	117.6	118.2	121.7	100.2	102.5	96.1	95.6	84.3
경남	113.8	116.3	130.2	108.3	108.9	97.7	97.6	103
제주	110.7	115.1	120.2	95.6	104.2	92.4	99.0	98
대도시	94.6	92.8	96.3	74.6	70.1	71.2	71.1	95.2
도지역	109.1	108.6	112.9	92.2	97.4	91.8	97.5	99.7
수도권	90.7	89.2	93.1	74.0	70.9	73.6	74.4	104.9
지방	114.1	113.1	116.4	90.3	91.2	83.6	87.2	96.1
충청권	115.7	114.0	115.7	84.5	87.4	79.0	81.2	95.7
호남권	137.2	130.3	136.3	102.1	109.0	98.9	99.4	97.5
영남권	109.3	108.6	111.2	88.1	86.2	79.5	84.5	96.7
강원·제주	107.7	108.3	114.7	92.4	95.8	89.9	93.6	92.9

주 : 예대율 = (대출액/예금액)×100(%)

자료 : 통계청 : 지역경제동향 (2004. 4)

## 2. 제주지역 금융 현황

제주지역 금융 산업은 실물경제 의존형의 구조로 실물경제의 성장에 따른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발전해 왔으며 자생적 성장 및 산업선도 기능이 미흡하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크고 금융 산업이 수신투위주로 성장해 오며 따라 산업 금융의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제주지역의 부도율 또한 높으며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 및 농업수입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자금흐름의 계절성도 높아 지역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제주지역의 금융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금융기관 점포 수

2002년 2월 금융 감독위원회는 BIS 기준 자기 자본비율이 1%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국민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를 명령했고 5월에는 제주은행이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또한 11월에는 한라신협을 최종 퇴출 대상으로 확정하여 예금과 출자금 인출 등이 완전 정지 되었다.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지점 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는 83개였던 예금은행 지점수가 1997년에는 94개로 약 13%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

후 2004년 77개로 약 18%의 감소율을 보였다.

비통화금융기관은 1995년 443개에서 1997년 384개로 약 13%의 감소율로 외환위기 이전부터 감소하는 추세였고, 1997년과 2004년에는 각각 384개에서 243개로 약 37%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지점수의 감소폭이 더욱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 및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부터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3-13> 금융기관 점포 수 추이

(단위 : 개,%)

구분		1995	1996	1997	증가율 (95-97)	1997	1999	2004	증가율 (97-04)
예금 은행	전국	6,443	7,129	7,644	18.6	7,644	6,324	5,060	-33.8
	제주	83	88	94	13.3	94	79	77	-18.1
비통화금융 기관	전국	24,489	23,592	21,980	-10.2	21,980	16,635	13,149	-40.2
	제주	443	432	384	-13.3	384	296	243	-36.7

자료 : 한국은행 (BOK - 인터넷 홈페이지 ECOS)



## 2) 여수신 규모

<표 3-14>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수신규모는 1995년 1조 990억원으로 전국 154조 1360억원의 0.7%수준이고 2004년에도 3조 9030억원으로 전국 540조 7620억원의 0.7%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전국대비 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 비통화금융기관은 1995년에는 4조 1810억원으로 전국 393조 9830억원의 1.1%의 수준에서 1997년 6조 4290억원으로 전국 541조 7330억원의 1.2%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2004년에는 5조 3410억원으로 전국 624조 5860억원의 0.9%로 하락하고 있다.

<표 3-15>에서 여신규모를 살펴보면 예금은행인 경우 1995년 1조 2170억원으로 전국의 0.8%수준이고, 2004년에는 4조 5860억원으로 전국의 0.8%의 수준으로 전국대비 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

비통화금융기관은 1995년 2조 3070억원으로 전국의 1.0%수준에서 1997년은 2조 8930억원으로 전국의 0.9%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04년에는 3조 4520억원으로 전국의 1.6%의 비중을 차지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14> 수신규모 변화 추이

(단위 : 10억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4
예금 은행	전국	154,136 (100)	181,724 (100)	198,197 (100)	251,795 (100)	323,411 (100)	404,661 (100)	455,631 (100)	540,762 (100)
	제주	1,099 (0.7)	1,248 (0.1)	1,432 (0.7)	1,903 (0.8)	2,260 (0.7)	2,980 (0.7)	3,240 (0.7)	3,903 (0.7)
비통 화금 융기 관	전국	393,983 (100)	466,688 (100)	541,733 (100)	646,053 (100)	609,778 (100)	525,454 (100)	510,321 (100)	624,586 (100)
	제주	4,181 (1.1)	5,084 (1.1)	6,429 (1.2)	5,778 (0.9)	6,003 (1.0)	5,263 (1.0)	4,894 (1.0)	5,341 (0.9)

자료 : 한국은행 (BOK:인터넷 홈페이지 ECOS)

주) ( )는 전국에 대한 분담비중임

<표 3-15> 여신규모 변화 추이

(단위 : 10억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4
예금 은행	전국	152,478 (100)	177,184 (100)	200,401 (100)	200,289 (100)	250,240 (100)	310,804 (100)	357,384 (100)	565,655 (100)
	제주	1,217 (0.8)	1,436 (0.8)	1,722 (0.9)	1,817 (0.9)	2,355 (0.9)	2,754 (0.9)	3,208 (0.9)	4,586 (0.8)
비통 화금 융기 관	전국	242,293 (100)	290,841 (100)	333,634 (100)	246,947 (100)	217,562 (100)	200,122 (100)	168,317 (100)	217,832 (100)
	제주	2,307 (1.0)	2,581 (0.9)	2,893 (0.9)	2,565 (1.0)	2,456 (1.1)	2,610 (1.3)	2,765 (1.6)	3,452 (1.6)

자료 : 한국은행 (BOK:인터넷 홈페이지 ECOS)

주) ( )는 전국에 대한 분담비중임

### 3) 시중 자금 사정

<표 3-16>을 보면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995년 110.7%에서 1997년 120.2%로 증가하다가 2004년에는 1997년 대비 98%로 22.2%p감소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의 위축이 예대율을 감소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비통화금융기관의 예대율은 전국적으로는 1995년 61.5%에서 1997년 61.6%로 높아졌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4년에는 34.9%로 1997년과 비교해서 26.7%p 감소하였다. 반면 제주지역 비통화금융기관의 예대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는 55.2%에서 1997년 46.3%로 8.9%p 감소하였으나 2004년 64.6%로 1997년보다 18.3%p 증가하여 전국의 예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제주지역 예금은행 예대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 3-16> 예대율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4
예금 은행	전국	98.9	97.5	101.1	79.5	77.4	76.8	78.4	77.9
	제주	110.7	115.1	120.2	95.6	104.2	92.4	99.0	98
비통화 금융 기관	전국	61.5	62.3	61.6	38.2	35.7	38.1	33.0	34.9
	제주	55.2	50.8	46.3	44.4	40.9	49.6	56.5	64.6

자료 : 한국은행(BOK: 인터넷홈페이지 ECOS)



1997년의 외환위기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는 어음교환 및 부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어음교환액은 1995년 6,416조 3380억원에서 1997년 7,391조 6,590억원으로 15.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7년 이후 2004년에는 3,665조 350억원으로 50.4%의 급격한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 됐고 어음을 통한 지방의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 지역 또한 1995년 13조 4790억원에서 1997년 15조 9940억원으로 18.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7년 이후 2004년에는 9조 4350억원으로 41%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서비스산업과 농업이 대부분인 제주 경제의 특성상 어음을 이용한 외상거래보다는 자기앞 수표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7> 어음교환액 변화 추이

(단위 : 10억원)

구분	1995	1996	1997	증가율 (95-97)	1997	1999	2004	증가율 (97-04)
전국	6,416,338	7,435,701	7,391,659	15.2	7,391,659	9,677,298	3,665,035	-50.4
제주	13479	14724	15994	18.7	15994	15442	9435	-41.0

자료 : 한국은행(BOK:인터넷 홈페이지 ECOS)

<표 3-18>에 어음부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1995년 0.2%에서 1997년 0.52%로 상승하였다가 2004년은 0.18%로 하락하여 다소 진정되는 수준이다. 제주지역은 1995년 0.93%, 1997년 역시 0.93%로 전국에 비해 높은 부도율을 보였으나 1999년 2000년에는 각각 0.25%로 전국의 부도율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4년에는 0.45%로 전국의 부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8> 어음부도율 변화 추이

(단위:%)

구분	1995	1996	1997	1997	1999	2000	2004
전국	0.20	0.17	0.52	0.52	0.43	0.39	0.18
제주	0.93	0.71	0.93	0.94	0.25	0.25	0.45

자료 : 한국은행(BOK:인터넷 홈페이지 ECOS)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 자금사정은 전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음부도율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안정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대율이 자금의 도외유출정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제주지역 예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4) 구조조정 이후 도내 금융기관 대출의 변화

##### (1) 도내 금융기관 대출현황

도내 금융기관의 총대출금 규모는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에는 7조 5,563억으로 예금은행이 4조 4,969억, 비은행 기관이 3조 59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대출액은 외환위기시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비은행 기관은 은행신탁 및 상호저축은행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적으로는 1997년과 비교해 보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이 심화된 상호저축은행의 연이은 퇴출과 신탁 상품의 수익성 저조에 따른 수신기반 약화로 상호저축 대출과 신탁대출이 크게 줄어든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은행 기관 중에서 농·수·축산업자를 주된 영업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이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도 소폭 증가하였다.

<표 3-19> 금융기관별 대출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예금은행	17,224	18,173	23,546	27,535	32,336	44,969	
비은행기관	은행신탁	3,129	1,555	958	577	171	66
	상호금융	11,232	11,417	12,008	13,701	14,825	17,976
	상호저축은행	5,734	4,479	3,564	3,159	3,449	482
	새마을금고	3,444	3,478	3,386	3,604	4,065	5,558
	신협	3,125	2,897	2,717	2,929	3,270	3,513
	생명보험	2,261	1,819	1,922	2,127	2,539	3,342
계	28,925	25,645	24,555	26,097	28,319	30,594	
합계	46,149	43,818	48,101	53,632	60,655	75,563	

자료 : 한국은행, 제주지역 경제동향 (2004. 2.), 한국은행 (BOK:인터넷 홈페이지 제주본부)

위와 같이 농어촌 및 도심지내 조합원 등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비은행 기관의 영업규모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과거 부실화에 따른 신용도 회복지연과 함께 예금은행과의 소매금융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영업기반이 위축되어 대출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또한 1997년 이후 도내 금융기관 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각각의 비은행 기관별로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 및 여신 전문심사역제도 도입 등 자체적인 경쟁력강화 노력과 더불어 선진 고객관리 기법도입과 금융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영업능력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

<표 3-2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비중을 1997년과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관광 관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997년 12.9%에서 2003년 27.3%로 14.4%p 상승하였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대한 예금은행의 대출규모는 1997년에 비해 약 2.1배 증가함으로써 제조업 및 건설업의 증가 추세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관광 산업 육성시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부터 숙박업 및 식당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철폐됨으로써 도내 콘도 및 펜션용 건축이 크게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의 대출비중은 최초 대출규모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1997년의 54.6%에서 2003년 38.5%로 16.1%p 하락 하였다.

한편 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있다.

<표 3-20>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추이

(단위 : 억원, %)

산업부문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대출금	비중										
농림어업	6,500	54.6	7,330	55.7	8,911	52.6	9,573	49.8	9,359	45.4	9,037	38.5
제조업	1,404	11.8	1,519	11.5	1,734	10.2	2,111	11.0	2,167	10.5	2,218	9.4
전기·가스·수도	36	0.3	34	0.3	35	0.2	29	0.2	64	0.3	39	0.2
건설업	991	8.3	912	6.9	1,177	6.9	1,346	7.0	1,395	6.8	2,105	9.0
도소매·음식·숙박	1,538	12.9	1,736	13.2	3,038	17.9	4,029	21.0	5,033	24.4	6,427	27.3
운수·창고·통신	299	2.5	278	2.1	335	2.0	406	2.1	401	1.9	478	2.0
금융·부동산	266	2.2	320	2.4	558	3.3	686	3.6	750	3.6	1,241	5.3
공공행정 등 기타	866	7.3	1,037	7.9	1,155	6.8	1,045	5.4	1,430	6.9	1,966	8.4
합계	11,900	100.0	13,166	100.0	13,943	100.0	19,225	100.0	20,599	100.0	23,511	100.0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 (지역경제동향 2003. 2), 한국은행 제주본부(BOK:인터넷 홈페이지)

이와 같이 금융자금이 관광 관련 산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빠르게 집중화됨에 따라 제조업 및 건설업 등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금융자금의 공급이 저조한 상황이고, 제조업 비중이 낮으며 관광 및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제조업과 건설업 등 생산 분야에 대

해 금융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여 산업간 자금이 균형배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지역금융 문제점

#### 1)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금융이 위축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변화 흐름은 지역금융의 위축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 비은행을 망라한 전 금융기관에서 금융 중심지인 서울로의 수신자금 집중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위험이 부각되면서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집중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다. 여신자금의 경우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기가 회복단계로 들어서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금융의 위축은 2가지 경로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조기정리 위주의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지역금융 기관의 대거 퇴출로 이어 지면서 자금이 이탈되었고, 둘째는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에 따라 금융 중심지인 서울로 자금이 집중되었다. 즉, 대형은행은 정상화되고 지역금융기관을 비롯한 소형 금융기관은 퇴출되면서 퇴출금융기관을 이탈한 자금이 대형 우량 금융기관이 있는 서울로 집중하게 되었다.

#### 2) 지역금융기관의 경쟁력 및 영향력 저하

구조조정 여파에서 생존한 지역금융기관들도 대형 우량 금융기관에 비해 여수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합병과 정부지원으로 우량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 저하로 인하여 수신 경쟁력과 자산 운용상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신 경쟁력보다 여신 경쟁력이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수신의 경우 예금자 보호 장치, 고금리, 비과세 등의 이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여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와 금융서비스의 낙후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자산 운용상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문제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구조조정으로 실물경제의 위축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 다시 금융기관들이 여신 등 자산운용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 <표 3-12>에서 예금은행의 예대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예금은행 뿐만 아니라 제 2금융권, 서민지역금융기관도 전반적으로 예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예대율의 감소는 지역자금의 유출이라는 관점보다는 자산운용상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대율의 감소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금융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서민 지역금융기관에까지 폭넓게 발생하는 만큼 지역자금 유출로만 보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금융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상의 문제를 안고 있을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금융기관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우량기업들이 발굴되고 성장되어야 할 것이다.

### 4) 제주지역 금융의 문제점

제주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부문이 취약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크고 금융산업이 수신위주로 성장하여 상업금융이 취약하다. 즉 지역의 총수신 중 저축성 금융기관인 신용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도내 금융기관 중 비은행기관의 수신점유비중은 1997년 약 78%에서 2004년 약 57%로 21%p 하락하였는데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내 산업구조 등으로 상호금융 중심의 비은행권 수신 점유율(1997년 은행권의 3.5배)이 은행권을 크게 앞질러 왔으나 1998년 이후 1차 산업의 비중 하락과 함께 계속 낮아져 2004년 은행권의 1.4배 수준에 그쳤다. 이는 비은행권 실정배당상품의 수익률 저하, 예금부분보장제 실시 및 일부 비은행권의 경영부실화 등에 따른 퇴출 등으로 인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예금주들이 은행권의 정기에금을 선호한 데 기인한 데 있고 비은행권보다 은행권의 금융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행권이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확보한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상호금융,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수신규모는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 비은행권 내에서의 기관별 수신 점유율 차이가 커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금융기관의 수신금리 하락세 지속에 따라 일반 예금자의 예금행태도 단기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금융기관의 중장기 시설자금 공급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예금은행 대상으로 조사한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2년 중 도내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중 만기 1년 이하 예금은 증가한 반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예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은행권의 실적배당상품 시장도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단기 채권형으로 집중되는 단기 부동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농어촌 및 도심지내 조합원 등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비은행예금기관의 영업규모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과거 부실화에 따른 신용도 회복 지연과 함께 은행과의 소매금융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영업기반이 위축되어 대출금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또한 1997년 이후 도내 금융기관 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저금리 상태 지속으로 인한 가계부문의 자금수요 증가와 함께 기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도가 낮고 대출취급이 용이한 가계에 대한 대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계의 금융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비은행예금기관 대출시장으로 여겨 왔던 일(주)수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및 무보증 소액신용대출 등의 분야까지 은행에서 경쟁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가계대출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자금이 관광관련산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빠르게 집중화됨에 따라 제조업 및 건설업 등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금융자금의 공급이 저조한 상황이며, 기업자금도 대부분 1년 미만의 운전자금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조업 비중이 낮고 관광 및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산업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제조업과 건설업 등 생산 분야에 대해 금융자금의 공급을 확대하여 산업간 자금이 균형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시설자금 수요처도 적극 발굴·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제 4 장 지역금융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VAR 모형 이용)

제2장에서 논의한 경제 발전과 금융의 관계에 대한 이론들을 보면 Patrick은 수요 추종가설과 공급선도가설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실물경제가 발전되지 못하면 금융이 제 기능을 못하고(수요추종가설), 실물경제가 발전하려면 먼저 금융이 먼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공급선도가설). Shaw와 Mckinnon도 금융의 심화현상이 자본축적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여 금융과 경제 발전의 관계를 논의하여 왔고, 금융이 실물부문에 확실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역금융과 지역경제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VAR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 제 1 절 지역별 금융과 실물경제와의 관계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과 원칙 하에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경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역총생산을 사용하고 불변가격을 사용하였다.

둘째, 지역 금융의 대출을 예금은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시간적 범위에 관한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각 지역을 1985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하였다. 단, 대전은 1989년부터 2003년까지 광주는 1987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하였다.

끝으로, 공간적 범위에 관한 것인데 울산을 제외한 15개의 시·도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 1.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적 검정

시계열 분석에서는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야 하므로 자료의 안정성(stationarity)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전통적 계량분석에서는 사용되는 자료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는 불안정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가 최근 많이 제시되고 있다.<sup>5)</sup>

이러한 불안정적인 시계열 자료에 대해 안정적 시계열 자료를 기초로 하는 회귀분석 등 전통적인 계량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변수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견상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회귀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단위근(unit root) 및 공적분(cointegration) 개념을 통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단위근 검정

확률적인 추세를 가진 시계열을 단위근(unit root)을 가졌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단위근을 가진 불안정시계열을 회귀분석에 그대로 이용하면 표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귀계수의  $t$ -값도 증가하여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 사이에도 마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sup>6)</sup>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제시계열이 확률적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충격(innovation)이 확률적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충격들은 그 영향이 지속적인 것이 특징이다.

시계열을 차분하여 사용할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어떤 시계열이 실제로 확률적 추세를 가지고 있을 경우 추정치에 대한 통계적 추론은 표준적인 분포에 따르지 않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시계열을 확정적 추세를 제거하고 통상적인 통계적 추론을 할 경우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시계열을 차분하여 사용할 경우의 단점은 차분함으로써 수준변수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정보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계열들이 단위근을 가지

5) Phillips(1986)는 시계열이 임의 보행확률과정(random walk process)에 가까운 불안정적인 확률과정 에 따를 경우 통상적인 또는 F검정통계량은 표준적인 접근분포에 따르지 않고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더욱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였다.

6) Granger and Newbold(1974)에 의해 지적되었다. 어떤 시계열이 확률적 추세를 가지고 있으면 차분(difference)을 하여 확률적 추세를 제거할 수 있다.

고 있는 것이 밝혀졌고 수준변수로 회귀분석을 하고 통계적 추론을 할 경우 사실과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차분된 시계열 자료를 주로 시계열 분석에 많이 사용된다.

어떤 경제시계열이 단위근(또는 확률적 추세)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교적 이용하기 쉬운 ADF 단위로 검정방법을 사용하였다. Dickey-Fuller 접근법에 시차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이용하여 단위근의 존재 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을 ADF(Augmented DF)검정법이라고 하는데 Dickey-Fuller의 단위근 검정법을 최소자승법으로 식 (4-1)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y_{t-1}$ 의 회귀계수가 0인가 즉  $\varphi=1$  인가를 Fuller(1976)의 임계치를 이용하여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Delta y_t = \alpha + \beta t + (\varphi - 1)y_{t-1} + \epsilon_t, \epsilon_t \sim \text{i.i.d} \quad (4-1)$$

한편 오차항이 때때로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 i.i.d)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4-2)식과 같이  $y_t$ 의 차분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면 백색 잡음(white noise)인 오차항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법이라 한다.

이 방법은 (4-1)식에 설명변수를 추가했기 때문에 1차 자기회귀모형에서는 과다추정(over-parameterization)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2차 이상의 자기회귀모형의 경우는 적합한 모형설정이 된다. ADF 검정은 (4-2)식에서  $\varphi=1$ 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Delta y_t = \alpha + \beta t + (\varphi - 1)y_{t-1} + \sum_{i=1}^P r_i \Delta y_{t-i} + \epsilon_t, \epsilon_t \sim \text{i.i.d} \quad (4-2)$$

<표 4-1>과 <표 4-2>는 ADF의 단위검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1> 지역별 대출금의 ADF 단위근 검정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수준변수	-1.86	-0.84	-2.37	-1.88	-2.25	-3.03	-1.85	-2.04
지역	전북	전남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수준변수	-1.11	-1.96	-0.88	-1.43	-2.85	-2.01	-2.11	-2.19

<표 4-2> 지역별 불변GRDP의 ADF 단위근 검정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수준변수	-1.88	-1.69	-2.24	-1.75	-1.83	-1.95	-2.99	-2.17
지역	전북	전남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수준변수	-1.46	-1.88	-2.08	-1.08	-2.30	-2.99	-1.85	-1.84

이상과 같이 단위근 검정을 한 결과 모든 수준변수들이 단위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공적분 검정



Engle and Granger(1987)에 의해 도입된 공적분의 통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별적으로는 단위근을 갖는 불안정한 시계열이지만 그들 사이에 안정적인 시계열을 생성하는 선형결합이 존재할 경우 이들 사이의 선형결합관계를 공적분 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공적분의 경제적인 의미는 변수사이에 장기적인 안정적인 균형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변수가 어떤 이유에서건 공적분 관계에 있는 다른 변수와의 안정관계가 깨질 경우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고 반드시 이전의 안정적인 관계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근을 가지는 시계열 변수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를 변수 사이에 안정적인 균형관계가 있는가를 검정하는 것이 된다.

Johansen(1988)과 Johansen and Juselius(1990)는 공적분 관계의 수와 모형의 모수들을 최우추정법(MLE)으로 추정하고 검정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이 방법을 요한슨 공적분 검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Dickey-Fuller의 단위근 검정을 다변수 경우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변수간의 공적분 존재유무는 Engle and Granger가 개발한 검정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변수(5개까지)간의 공적분 존재유무는 Engle and Yoo(1987)의 검정방법과 그 임계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제로 사용하기에 편리한 점은 있으나 여러 개의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경우 이용될 수 없다. n개의 변수로 구성된 모형에서는 최대한 n-1개의 서로 독립적인 공적분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공적분 관계의 수가 몇 개인가를 검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때엔 Stock and Watson(1988)이나 Johansen(1988)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로 독립적인 관계의 수를 정할 수 있다.

<표 4-3>는 지역별 불변GRDP와 대출금의 요한슨 공적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각 지역들의 대출금과 불변GRDP는 공적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변수 간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공통적인 충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전북과 경북은 대출금과 불변GRDP 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나타났다.

<표 4-3> 지역별 불변GRDP와 대출금의 요한슨 공적분 검정

지역	특성근	우도비( $\lambda_{trace}(r)$ )	귀무가설하 공적분 벡터수
전국	0.380136	9.039535	0
	0.052078	0.909209	최대1
서울	0.479360	13.61136	0
	0.137545	2.515521	최대1
부산	0.384870	8.382435	0
	0.007138	0.121774	최대1
대구	0.393447	10.08084	0
	0.088831	1.581465	최대1
인천	0.368592	7.816933	0
	1.64E-05	0.000278	최대1
광주	0.538552	12.01446	0
	0.027201	0.413664	최대1
대전	0.647816	13.37358	0
	0.000520	0.006758	최대1
경기	0.385109	8.460280	0
	0.011289	0.193011	최대1
전북	0.448561	14.28356	0
	0.217283	4.164738	최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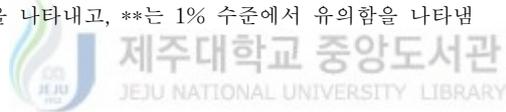
전남	0.415994	10.20052	0
	0.060292	1.027167	최대1
강원	0.452846	13.78268	0
	0.187566	3.531250	최대1
충북	0.433684	14.73662	0
	0.186023	3.498992	최대1
충남	0.435007	10.33207	0
	0.036157	0.626051	최대1
경북	0.615378	16.73480	0*
	0.028492	0.491403	최대1
경남	0.417373	10.25672	0
	0.061177	1.073185	최대1
제주	0.371271	8.376858	0
	0.028294	0.487927	최대1

주) 5% 임계치 = 15.41 3.76

1% 임계치 = 20.04 6.65

(0개) (최대1개)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고,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2. 최적시차 검정

일변량 시계열 모형에 대한 시차길이는 편자기상관함수(partial auto correlation function : ACF)에 의해 결정한다. 벡터모형의 경우는 편자기 상관이 행렬형태이며 이때 편자기 상관행렬을 시각적으로 검토하여 모형의 시차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VAR모형의 추정오차에 대한 공분산행렬인  $\Sigma_p$ 를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치가 최소화되는 아카이케(Akaike : AIC) 또는 슈바르츠(Schwartz : SC) 통계량에 의해서 시차길이를 결정할 수 있다.

$$AIC_{(p)} = \ln|\widehat{\Sigma}_p| + \frac{2(n_p^2 + 1)}{T - p}$$

$$SC_{(p)} = \ln|\widehat{\Sigma}_p| + \frac{(n_p^2 + 1) \ln(T - p)}{T - p}$$

본 논문에서는 AIC와 SC의 기준에 의한 적정시차는 <표 4-4>와 같이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1로 하였다.

<표 4-4> 지역별 적정시차

차수 지역	AIC		SC	
	1차	2차	1차	2차
전국	-6.14	-5.78	-5.85	-5.27
서울	-5.60	-5.47	-5.31	-4.99
부산	-4.91	-4.34	-4.62	-3.86
대구	-4.92	-4.89	-4.63	-4.41
인천	-4.83	-4.44	-4.53	-3.95
광주	-4.83	-4.84	-4.55	-4.38
대전	-4.80	-4.92	-4.54	-4.52
경기	-5.40	-5.22	-5.10	-4.73
전북	-5.73	-5.35	-5.43	-4.87
전남	-4.20	-5.42	-3.91	-4.94
강원	-5.95	-5.64	-5.65	-5.16
충북	-6.09	-6.18	-5.80	-5.70
충남	-3.81	-3.67	-3.51	-3.15
경북	-6.49	-6.58	-6.20	-6.10
경남	-3.93	-3.46	-3.64	-2.98
제주	-5.53	-5.23	-5.24	-4.75

### 3. 인과성 검정

회귀분석에서 어느 것이 원인변수이고 어느 것이 결과변수인가에 대한 문제는 경제 이론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진 것으로 보고 그러한 인과관계를 현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가 불투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함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는 검정이 인과관계 검정으로 Granger(1969)에 의해 개발되었다. 확률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전통적인 F 통계량을 이용한 비교적 단순한 방법이다.

Granger 정의에 의하면 Y를 예측(추정)할 때 X의 과거 값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Y의 과거 값만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정확하다면 X에서 Y로의 인과방향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X의 예측이 자신의 과거 값에 의존하는 것보다 Y의 과거 값의 포함됨으로써 좋아진다면 Y에서 X로의 인과방향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계가 두 방향 모두 성립될 경우 X와 Y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쌍방향의 인과방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이라고 할 수 있다.

Granger 검정법을 다음과 같이 X와 Y간의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모형으로 두 회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_t = \sum_{i=1}^n \alpha_i X_{t-i} + \sum_{j=1}^n \beta_j Y_{t-j} + \epsilon_{1t} \quad (4-3)$$

$$X_t = \sum_{i=1}^n \gamma_i X_{t-i} + \sum_{j=1}^n \delta_j Y_{t-j} + \epsilon_{2t} \quad (4-4)$$

한편 Sims(1972)는 (4-5)식의 시차회귀모형에서  $b_j=0$  (모든  $j<0$ )일 때만이 Y가 X의 원인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Y_t = \sum_{j=-\infty}^{\infty} b_j x_{t-j} + u_t \quad (4-5)$$

그러나 실제로 검정할 때는 Granger 인과검정방법은 Y를 Y의 시차변수 및 X의 시차변수로 회귀식을 추정하여 X의 시차변수들의 결합 검정(joint test)을 하는 반면 Sims 인과검정방법은 X를 Y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변수로 회귀식을 추정하여 Y의 미래변수들의 결합 검정을 한다. 여기서는 Granger의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검정하였다.

<표4-5>는 각 지역별 대출금과 불변GRDP의 인과성 검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5> 인과성 검정

지역 \ 변수	대출금↔불변GRDP	불변GRDP↔대출금
전국	0.82(0.37)	0.57(0.46)
서울	1.34(0.26)	1.44(0.24)
부산	0.05(0.81)	0.08(0.77)
대구	0.02(0.90)	0.07(0.79)
인천	0.07(0.79)	0.38(0.54)
광주	4.29 <sup>+</sup> (0.06)	0.62(0.44)
대전	0.64(0.44)	0.02(0.97)
경기	0.06(0.80)	0.45(0.51)
전북	0.25(0.62)	0.26(0.62)
전남	1.14(0.35)	1.51(0.26)
강원	0.08(0.77)	0.60(0.45)
충북	0.05(0.49)	0.28(0.60)
충남	0.39(0.53)	0.09(0.76)
경북	0.41(0.53)	3.04(0.10)
경남	40.27 <sup>*</sup> (0.00)	2.28(0.15)
제주	0.65(0.43)	0.07(0.78)

주)<sup>+</sup>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고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는 유의수준을 나타냄

이상과 같이 광주, 경남은 대출금이 불변GRDP의 원인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 4. 충격반응과 예측오차분산분해

경제에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그 충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 내 다른 부문으로 어떻게 파급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파급경로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 이를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이라 한다. 충격반응분석은 Sims에 의해 최초로 경제학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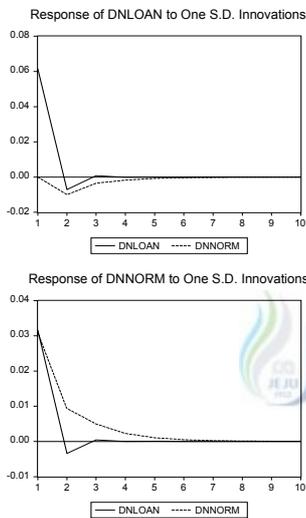
<그림 4-1>은 전국의 충격반응을 나타내는데 먼저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3%의 반응을 보이다가 2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기 이후

에는 약 1%만큼 감소하고 3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2>는 서울지역의 충격반응을 나타내는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2%의 반응을 보이고 2기 이후부터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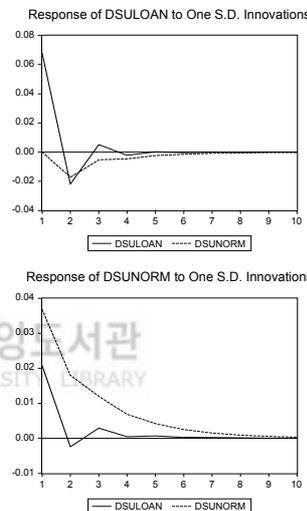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기 이후에는 2%만큼 감소하고 3기 이후부터는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림 4-1> 전국의 충격반응



주)DNLOAN은 전국의 대출금을 나타내며  
DNNORM은 전국의 불변GRDP를 나타냄

<그림 4-2> 서울지역의 충격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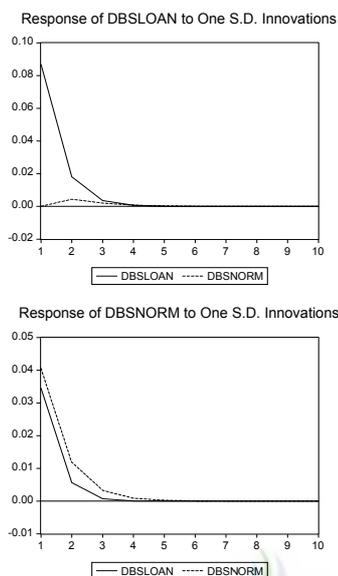


주)DSULOAN은 서울의 대출금을 DSUNORM은 서울의  
불변GRDP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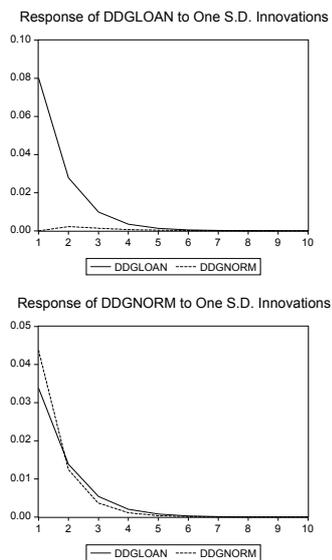
<그림 4-3>은 부산지역의 충격반응을 나타내는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3%의 반응을 보이다가 2기 이후에는 0.5%로 감소하고 3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부터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4>는 대구지역의 충격반응을 나타내는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을 보면 1기에는 약 3%의 반응을 보이다가 2기에는 약 1%로 감소하고 4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부터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3> 부산지역의 충격반응



<그림 4-4> 대구지역의 충격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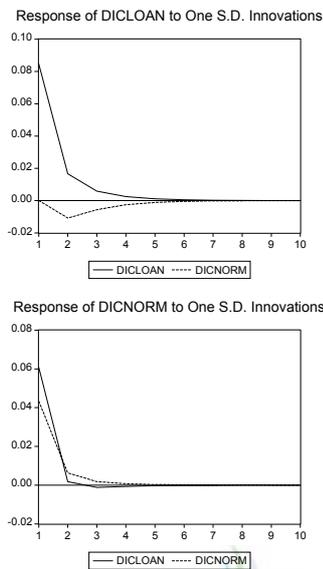
주)DBSLOAN은 부산 대출금을 나타내며 DBSNORM은 부산의 불변GRDP를 나타냄

주)DDGLOAN은 대구의 대출금을 나타내며 DDGNORM은 대구의 불변GRDP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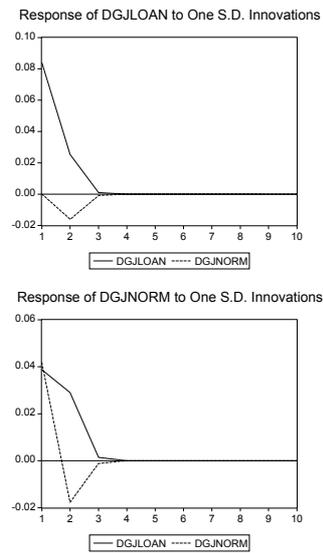
<그림 4-5>는 인천지역의 충격반응인데 먼저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6%의 반응을 보이고 2기 이후부터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2기에는 약 1% 만큼 감소하고 4기 이후부터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6>은 광주지역의 충격반응으로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4%의 반응을 보이고 2기에는 약 2%로 하락하다가 3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기에는 약 2%로 감소하고 3기 이후에는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림 4-5> 인천지역의 충격반응



<그림 4-6> 광주지역의 충격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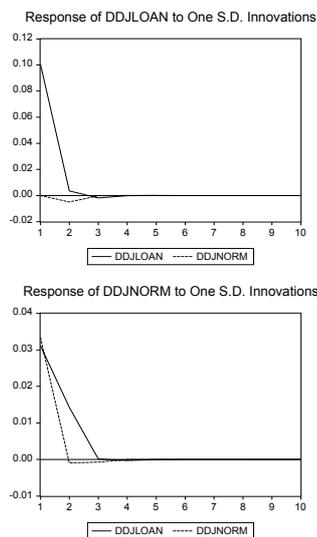


주)DICLOAN은 인천 대출금을 나타내며 주)DGJLOAN은 광주의 대출금을 나타내며  
 DICNORM은 인천의 불변GRDP를 나타내며 DGJNORM은 광주의 불변GRDP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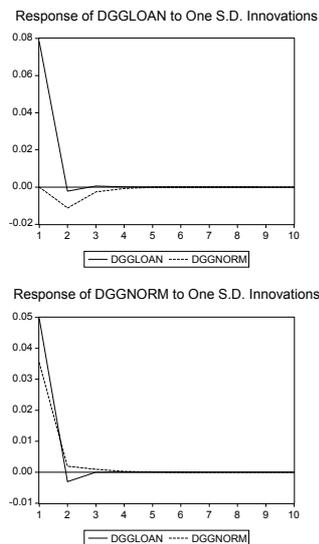
<그림 4-7>은 대전지역의 충격반응을 살펴보면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3%의 반응을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여 3기 이후에는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부터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8>은 경기지역의 충격반응을 나타내는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 1기에는 약 5%의 반응을 보이고 2기 이후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기에는 1%만큼 감소하다가 3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7> 대전지역의 충격반응



<그림 4-8> 경기지역의 충격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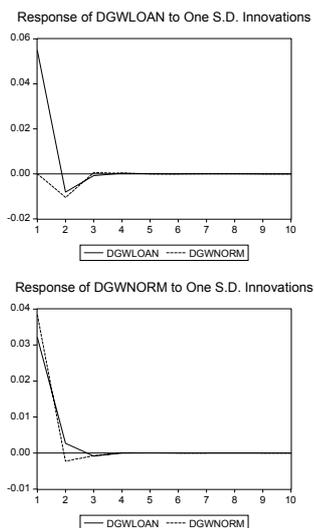


주)DDJLOAN은 대전 대출금을 나타내며 DDJNORM은 대전의 불변GRDP를 나타냄  
 주)DGGLOAN은 경기의 대출금을 DGGNORM은 경기의 불변GRDP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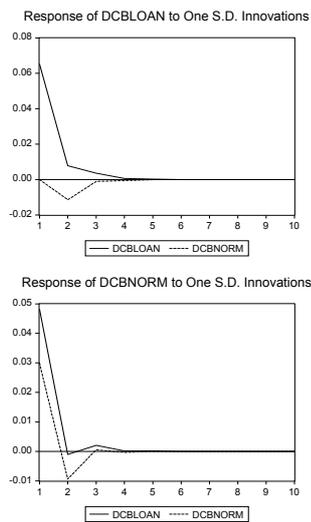
<그림 4-9>는 강원지역의 충격반응인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을 살펴보면 1기에는 약 3%의 반응을 보이다가 2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이 없다가 2기에는 약 1%만큼 감소하고 3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10>은 충북지역의 충격반응을 나타내는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을 보면 1기에는 약 5%의 반응을 보이고 2기 이후부터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기에는 1%만큼 감소하고 3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이 없다.

<그림 4-9> 강원지역의 충격반응



<그림 4-10> 충북지역의 충격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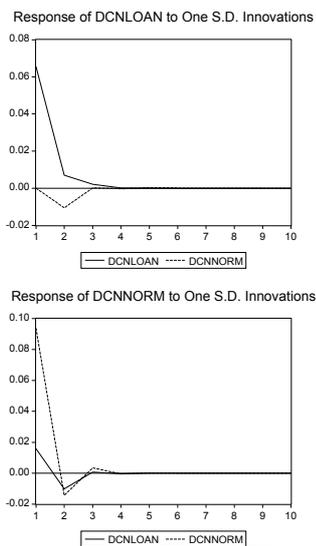


주)DGWLOAN은 강원 대출금을 나타내며 주)DCBLOAN은 충북의 대출금을 나타내며  
 DGWNORM은 강원대전의 불변GRDP를 나타내며 DCBNORM은 충북의 불변GRDP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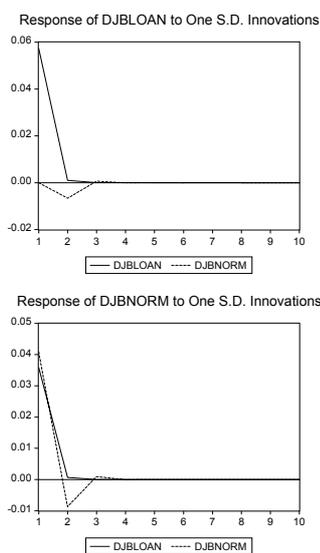
<그림 4-11>은 충남지역의 충격반응인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을 보면 1기에는 약 2%의 반응을 보이다가 2기에는 약 1%로 감소하고 3기 이후에는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2기 이후에는 1%로 감소하다가 3기 이후에는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림 4-12>는 전북지역의 충격반응인데 먼저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4%의 반응을 보이고 2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이 없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기 이후에는 약 1%로 감소하고 3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11> 충남지역의 충격반응



<그림 4-12> 전북지역의 충격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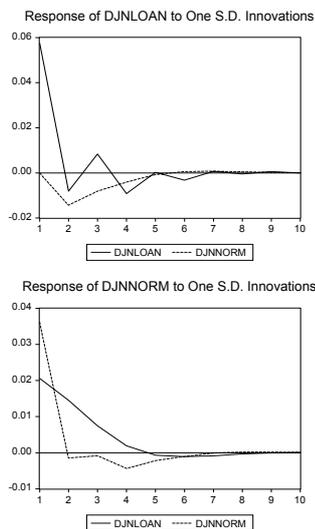


주)DCNLOAN은 충남 대출금을 나타내며 주)DJBLOAN은 전북의 대출금을 DLJBNORM은 전북의 DCNNORM은 충남의 불변GRDP를 나타냄 DLJBNORM은 전북의 불변GRDP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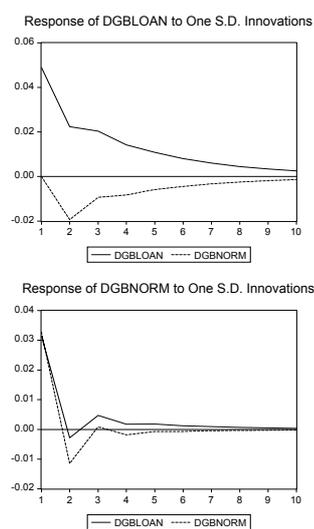
<그림 4-13>은 전남지역의 충격반응인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2%의 반응을 보이고 2기 이후에는 약 1%로 감소하다가 4기 이후에는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2기에는 약 2%로 감소하다가 3기에는 약 1%의 반응을 보이고 4기 이후부터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14>는 경북지역의 충격반응인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3%의 반응을 보이고 2기에는 약 1%로 감소하다가 3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기 이후 약 2%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5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13> 전남지역의 충격반응



<그림 4-14> 경북지역의 충격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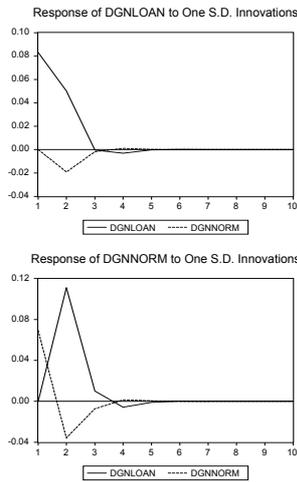


주)DJNLOAN은 전남 대출금을 나타내며 주)DGBLOAN은 경북의 대출금을 DGBNORM은 경북의 DJNNORM은 전남의 불변GRDP를 나타냄 불변GRDP를 나타냄

<그림 4-15>는 경남지역의 충격반응을 나타내는데 먼저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 GRDP의 반응을 살펴보면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기에는 약 11%로 증가하고 3기에는 약 1%로 감소하다가 4기 이후부터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불변 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을 보면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2기에는 2%로 감소하다가 3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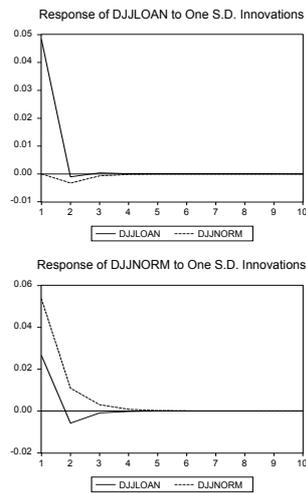
<그림 4-16>은 제주지역의 충격반응인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불변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3%의 반응을 보이다가 2기에는 약 1%로 하락하고 3기 이후부터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불변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 이후부터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15> 경남지역의 충격반응



주)DGNLOAN은 경남 대출금을 나타내며  
DGNNORM은 경남의 불변GRDP를 나타냄

<그림 4-16> 제주지역의 충격반응



주)DJJLOAN은 제주의 대출금을 DJJNORM은 제주의  
불변GRDP를 나타냄

예측오차분산분해란 한 변수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모형 내 각 충격이 설명하는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예측오차분산분해를 이용하면 한 변수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모형 내 각 충격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다.

다음의 <표 4-6>과 <표 4-7>은 각각 대출금의 예측오차분산의 불변GRDP에 의한 설명비율과 불변GRDP의 예측오차분산분해의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국의 대출금 예측오차분산분해의 불변GRDP에 의한 설명비율은 2기 이후부터는 3%도 안되는 비율로 설명하고 있어 거의 설명력을 갖고 있지 않고 불변GRDP의 예측오차분산분해의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은 1기 이후부터 약 50%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모든 지역은 대출금의 예측오차분산분해의 불변GRDP에 의한 설명비율이 거의 설명력을 갖고 있지 않고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경북 그리고 경남 지역은 불변GRDP의 예측오차분산분해의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이 50% 이상으로 대출금이 불변GRDP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6> 대출금의 예측오차 분산의 불변GRDP에 의한 설명비율

지역 \ 기간	1	2	3	4	5	6	7	8	9	10
전국	0.00	2.56	2.89	2.95	2.97	2.97	2.97	2.97	2.97	2.97
서울	0.00	5.58	6.06	6.43	6.52	6.56	6.58	6.58	6.58	6.58
부산	0.00	0.24	0.29	0.3	0.30	0.30	0.30	0.30	0.30	0.30
대구	0.00	0.06	0.08	0.09	0.09	0.09	0.09	0.09	0.09	0.09
인천	0.00	1.55	1.95	2.03	2.05	2.05	2.05	2.05	2.05	2.05
광주	0.00	3.29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대전	0.00	0.24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경기	0.00	2.05	2.16	2.16	2.17	2.17	2.17	2.17	2.17	2.17
전북	0.00	1.32	1.33	1.33	1.33	1.33	1.33	1.33	1.33	1.33
전남	0.00	5.76	7.32	7.57	7.59	7.57	7.58	7.59	7.59	7.59
강원	0.0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충북	0.00	2.94	2.96	2.96	2.96	2.96	2.96	2.96	2.96	2.96
충남	0.00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경북	0.00	11.45	12.26	13.14	13.49	13.69	13.79	13.85	13.88	13.90
경남	0.00	3.76	3.79	3.80	3.80	3.80	3.80	3.80	3.80	3.80
제주	0.00	0.47	0.49	0.49	0.49	0.49	0.49	0.49	0.49	0.49

<표 4-7> 불변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

지역 \ 기간	1	2	3	4	5	6	7	8	9	10
전국	50.94	49.04	48.47	48.35	48.33	48.32	48.32	48.32	48.32	48.32
서울	24.06	20.59	19.58	19.19	19.06	19.01	19.00	18.99	18.99	18.99
부산	41.94	40.58	40.45	40.44	40.44	40.44	40.44	40.44	40.44	40.44
대구	37.29	39.12	39.49	39.55	39.56	39.56	39.56	39.56	39.56	39.56
인천	66.25	65.80	65.77	65.77	65.77	65.77	65.77	65.77	65.77	65.77
광주	46.20	53.15	53.16	53.16	53.16	53.16	53.16	53.16	53.16	53.16
대전	46.55	51.28	51.27	51.27	51.27	51.27	51.27	51.27	51.27	51.27
경기	66.27	66.28	66.27	66.27	66.27	66.27	66.27	66.27	66.27	66.27
전북	43.33	42.26	42.25	42.25	42.25	42.25	42.25	42.25	42.25	42.25
전남	24.50	32.66	34.52	34.31	34.24	34.26	34.29	34.29	34.29	34.29
강원	41.25	41.33	41.34	41.34	41.34	41.34	41.34	41.34	41.34	41.34

충북	72.11	70.18	70.21	70.21	70.21	70.21	70.21	70.21	70.21	70.21
충남	2.76	3.75	3.75	3.75	3.75	3.75	3.75	3.75	3.75	3.75
경북	47.92	45.24	45.77	45.78	45.84	45.87	45.88	45.89	45.89	45.90
경남	0.00	67.04	67.02	67.07	67.07	67.07	67.07	67.07	67.07	67.07
제주	19.63	19.63	19.72	19.72	19.72	19.72	19.72	19.72	19.72	19.72

이상과 같이 지역별 충격반응과 예측오차분산분해를 살펴보았는데 광주와 경남은 대출금이 불변GRDP의 원인변수가 되었고 불변GRDP 예측오차분산분해의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도 높았다. 인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은 대출금이 불변GRDP의 원인변수는 아니지만 불변GRDP의 예측오차분산분해의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이 대출금의 예측오차분산분해의 불변GRDP의 설명비율보다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atrick과 Mckinnon 등과 같은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의해 금융이 불변GRDP를 선도함으로써 대출의존도가 강하고 금융제약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으로 금융발전이 먼저 되어 있어야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 2 절 제주지역 실물경제와 금융과의 관계**

제 1 절에서 각 지역에 대한 실증분석을 해 보았는데 제주지역은 대출금과 불변GRDP와의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고 충격반응 또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제와 금융의 미시적 자료를 실증분석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제주지역 실물경제와 금융과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에 앞서 지역경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산업별 GRDP를 사용하였고, 금융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1985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하였으며 금융업은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을 측정하는 지표로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한국은행 제주본부 홈페이지에서 얻었다.<sup>7)</sup>

7) 자료는 부록 (표 A-3)를 참고 할 것

## 1.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적 검정

### 1)단위근 검정

<표 4-8>과 <표 4-9>는 제주지역 산업별 GRDP와 대출금의 ADF 단위근 검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 4-8> 제주지역 산업별 GRDP의 ADF 단위근 검정

산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수도	음식·숙박	교통	금융	기타
수준변수	-2.85	-2.38	-3.68 <sup>+</sup>	-2.98	-1.81	-2.32	-1.41	-1.69

주)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4-9> 제주지역 산업별 대출금의 ADF 단위근 검정

산업	농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수도	음식·숙박	교통	금융	기타
수준변수	-0.79	-1.78	-2.80	-2.05	-2.13	-2.08	-1.81	-2.45

주)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고,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건설업을 제외한 각 변수들의 수준변수들은 단위근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2) 공적분 검정

다음의 <표 4-10>은 제주지역 산업별 GRDP와 산업별 대출금의 요한슨 공적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10> 제주지역 산업GRDP와 대출금의 요한슨 공적분 검정

산업	특성근	우도비( $\lambda_{trace}(r)$ )	귀무가설하 공적분 벡터수
농림어업	0.494148	17.20256	0*
	0.281316	5.615676	최대1*
제조업	0.320591	9.850186	0
	0.175428	3.279140	최대1

건설업	0.532854	12.57597	0
	0.024578	0.398165	최대1
전기·수도·가스	0.296741	8.673041	0
	0.146277	2.688530	최대1
도소매·음식·숙박	0.338118	7.500330	0
	0.028125	0.484983	최대1
교통·통신업	0.477692	11.16638	0
	0.007321	0.124915	최대1
금융업	0.432210	7.802700	0
	0.133534	1.576659	최대1
기타서비스업	0.271749	6.041123	0
	0.037529	0.650268	최대1

주) 5% 임계치 = 15.41 3.76

1% 임계치 = 20.04 6.65

(0개) (1개)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각 산업별 GRDP와 대출금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공통적인 충격을 존재하지 않으나 농업부문은 대출금과 산업GRDP 사이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인과성 검정

인과성 검정 결과 <표 4-11>와 같이 인과성 검정을 해 보았는데 농업, 운수업은 대출금이 산업GRDP의 원인 변수가 되고 음식·숙박업, 금융업은 산업GRDP가 대출금의 원인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표 4-11> 인과성 검정

산업	농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수도	음식·숙박업	운수	금융	기타
대출금↔ 산업GRDP	3.52 <sup>+</sup> (0.06)	0.54 (0.47)	1.90 (0.19)	0.09 (0.76)	0.05 (0.83)	11.11 <sup>*</sup> (0.00)	1.42 (0.29)	0.39 (0.53)
산업GRDP ↔대출금	0.27 (0.76)	0.56 (0.46)	1.73 (0.22)	0.01 (0.90)	5.50 <sup>*</sup> (0.03)	0.84 (0.37)	5.69 <sup>*</sup> (0.02)	1.84 (0.19)

주) +는 10% 준에서 유의함을, \*은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3. 충격반응과 예측오차분산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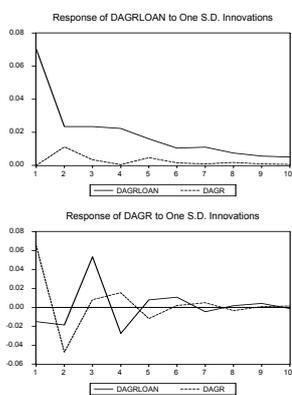
충격반응함수에 대한 분석은 VAR모형 내의 특정 변수에 일정한 충격을 가했을 때, 다른 변수들에게 어느 정도의 파장을 주며, 어느 기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림 4-17>은 농림어업부문의 충격반응을 나타내는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농림어업GRDP의 반응을 보면 2기까지는 약 2%로 하락하다가 3기에는 약 6%로 증가하고 4기 이후에는 다시 약 2%로 하락한 후 5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농림어업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기에는 1%로 증가하고 3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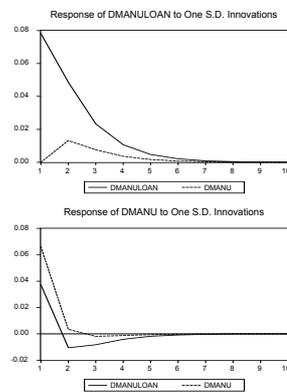
<그림 4-18>에서 제조업부문의 충격반응을 살펴보면 대출금 충격에 대한 제조업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4% 증가하고 2기에는 약 1%로 하락한 후 3기 이후에는 계속 증가하면서 균제상태로 수렴하게 된다. 제조업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보이지 않고 2기에는 약 1%로 증가하다가 4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17> 농림어업부문의 충격반응

<그림 4-18> 제조업부문의 충격반응



주) DAGRloan은 농림어업부문 대출금,  
DAGR은 농림어업부문의 GRDP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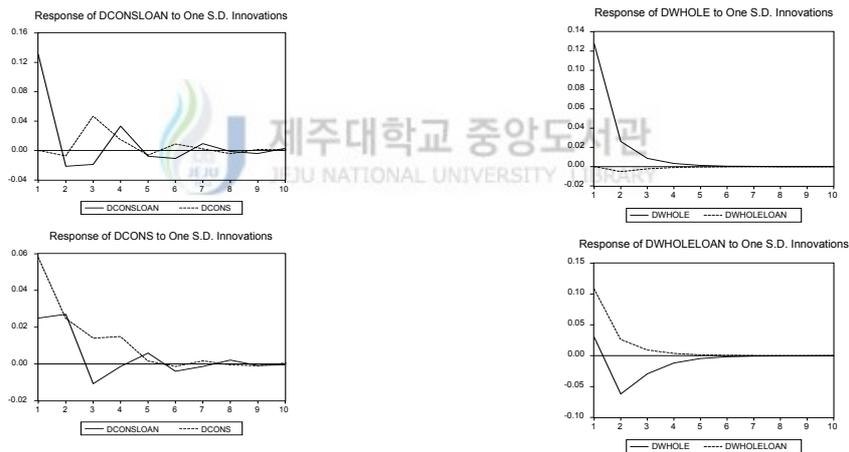


주) DMANUloan은 제조업부문 대출금,  
DMANU는 제조업 GRDP을 나타냄

<그림 4-19>를 보면 건설업부문의 충격반응으로 대출금 충격에 대한 건설업GRDP의 반응을 보면 2기까지 약 3%로 증가하다가 3기에는 약 1%로 하락하고 4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건설업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3기에는 약 5%로 증가하고 5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20>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부문의 충격반응인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GRDP의 반응은 1기 이후부터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약 3% 증가하고 2기에는 약 5%로 하락하다가 3기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여 5기 이후부터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19> 건설업부문의 충격반응      <그림 4-2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부문의 충격반응



주) DCONSloan : 건설업부분 대출금,  
DCONS : 건설업부분 GRDP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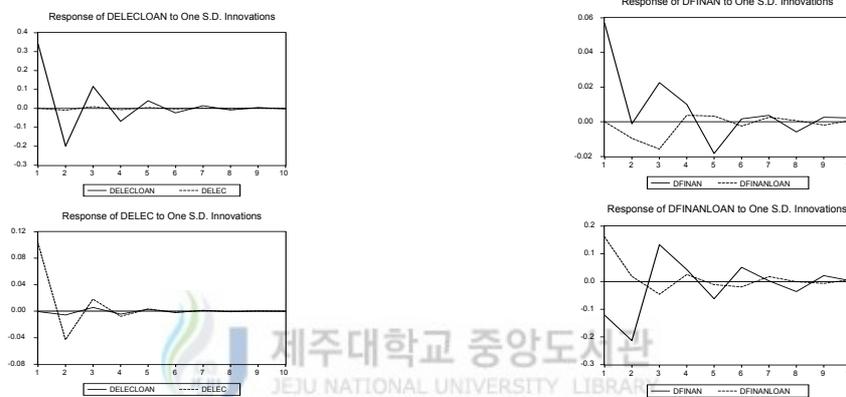
주) DRESTloan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대출금,  
DREST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RDP을 나타냄

<그림 4-21>은 전기·가스·수도업부문의 충격반응을 나타낸다. 먼저 대출금 충격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업GRDP의 반응은 1기부터 거의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 전기·가스·수도업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부터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22>는 금융업부문의 충격반응인데 대출금충격에 대한 금융업GRDP의 반응은 3기까지 약 2%로 감소하다가 4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금융업GRDP 충격에 의한 대출금의 반응은 2기까지 약 20%로 하락하다가 3기에는 약 10%로 증가한 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9기 이후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21> 전기·가스·수도업부문의 충격반응

<그림 4-22> 금융업부문의 충격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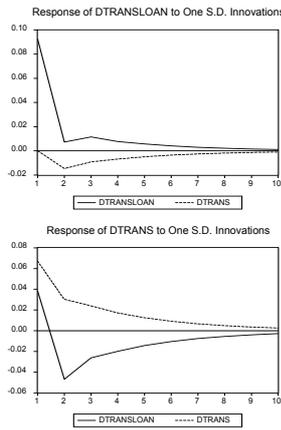
주) DELECLoan은 전기·수도업부문 대출금,  
DELEC는 전기·수도업 GRDP을 나타냄

주) DFINANloan은 금융업부문 대출금,  
DFINAN은 금융업 GRDP을 나타냄

<그림 4-23>은 운수업부문의 충격반응인데 대출금 충격에 대한 운수업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4% 상승하다가 2기에는 약 5%로 하락하고 3기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하여 균제상태에 수렴한다. 운수업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이 없다가 2기에는 약 2%로 하락하고 3기 이후에는 계속 증가하면서 균제상태로 수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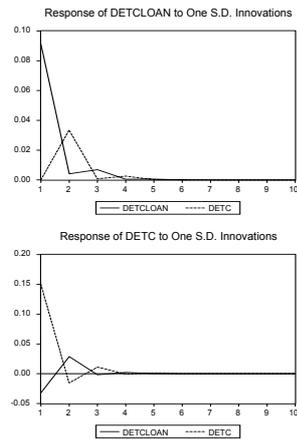
<그림 4-24>는 기타 서비스업부문의 충격반응으로 대출금 충격에 대한 기타 서비스업GRDP의 반응은 1기에는 약 4% 하락하고 2기에는 약 3% 상승하다가 3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기타 서비스업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은 1기에는 반응이 없다가 2기에는 약 3%의 반응을 보이고 3기 이후에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4-23> 운수업부문의 충격반응



주) LTRANSloan은 교통업부문 대출금 ,  
LTRAN은 교통업 GRDP을 나타냄

<그림 4-24> 기타 서비스업부문의 충격반응



주) LETCloan은 기타부문 대출금 ,  
LETC은 기타부문 GRDP를 나타냄

<표 4-12>와 <표 4-13>은 각각 산업별 대출금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별 GRDP에 의한 설명비율과 산업별 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별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금융업을 보면 산업별 대출금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GRDP에 의한 설명비율은 2기 이후부터 50%가 훨씬 넘게 나타나고 있고 산업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보다 훨씬 설명력이 큼을 알 수 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또한 그리 큰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 대출금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GRDP에 의한 설명비율이 산업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기타 서비스업도 설명력이 크지는 않지만 산업 대출금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GRDP에 의한 설명비율이 산업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농업과 운수업은 50%도 안되는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산업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이 산업대출금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GRDP에 의한 설명비율보다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도 산업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이 더 높고 전기·수도·가스업도 설명력은 아주 작지만 산업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별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표 4-12> 산업별 대출금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별 GRDP에 의한 설명비율

산업 \ 기간	1	2	3	4	5	6	7	8	9	10
농업	0.00	2.19	2.18	2.02	2.24	2.24	2.21	2.24	2.24	2.24
제조업	0.00	2.01	2.50	2.61	2.63	2.63	2.63	2.63	2.63	2.63
건설업	0.00	0.31	11.15	11.48	11.62	11.87	11.84	11.91	11.91	11.91
전기·수도·가스업	0.00	0.05	0.10	0.13	0.14	0.15	0.15	0.15	0.15	0.15
도소매및음식·숙박업	7.16	27.75	31.06	31.57	31.65	31.66	31.66	31.66	31.66	31.66
운수업	0.00	2.45	3.32	3.78	4.02	4.15	4.22	4.25	4.27	4.28
금융업	36.42	69.68	73.29	73.32	74.14	74.48	74.29	74.57	74.64	74.60
기타 서비스업	0.00	11.83	11.77	11.83	11.83	11.83	11.83	11.83	11.83	11.83

<표 4-13> 산업별 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별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

산업 \ 기간	1	2	3	4	5	6	7	8	9	10
농업	5.11	8.10	34.32	38.10	37.97	38.60	38.63	38.60	38.69	38.69
제조업	24.15	25.54	26.38	26.58	26.62	26.63	26.63	26.64	26.64	26.64
건설업	15.61	25.37	26.02	25.06	25.49	25.69	25.70	25.75	25.76	25.76
전기·수도·가스업	0.00	0.25	0.50	0.65	0.72	0.75	0.76	0.76	0.76	0.76
도소매및음식·숙박업	0.00	0.15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운수업	24.71	40.46	42.20	43.14	43.58	43.80	43.92	43.98	44.01	44.02
금융업	0.00	2.79	8.38	8.47	8.06	8.18	8.29	8.23	8.29	8.30
기타 서비스업	4.37	7.52	7.50	7.51	7.51	7.51	7.51	7.51	7.51	7.51

이상과 같이 산업별 대출금과 산업별GRDP의 관계를 실증분석 해보았는데 농업, 운수업은 대출금이 산업GRDP에 영향을 주며 대출금이 산업GRDP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제조업, 건설업은 대출금이 산업GRDP의 원인변수는 아니지만 산업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이 산업 대출금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GRDP에 의한 설명비율보다 크므로 대출금이 산업GRDP에 외생적이라 할 수 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업은 산업GRDP가 대출금에 영향을 주며 그 설명비율 또한 높았고 기타 서비스업은 산업 대출금의 예측오차 분산의 산업GRDP에 의한 설명비율이 산업GRDP의 예측오차 분산의 대출금에 의한 설명비율보다 크므로 산업GRDP가 산업 대출금에 외생적이라 할 수 있다.

## 제 5 장 제주지역 경제 및 금융 활성화 방안

### 제 1절 경제 활성화 방안

#### 1. 단기정책 방안

제주도는 도정의 최우선 정책인 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 경제 살리기 범도민 대책협의회,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협의회, 경제상황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2005 제주경제 살리기 추진 대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분류해 보면 서민경제, 민자유치, 고용, 건설경기, 농수축산업, 관광객유치 등의 분야에서 <표 5-1>과 같다. 추진대책이 잘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투자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사업 또는 계획의 실행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이나 대책의 선정이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안전망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퍼주기 식’보다는 재생산이 가능한 생산적 복지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1> 추진대책 분류 및 요약

분야	추진대책	세부내용
서민경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10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체 및 지원한도액 확대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토착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상담소 개소 -배드뱅크 제주센터 개설
	지역상원 활성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4개 시장 64억원) -관광업체와 상생 방안 추진 -중소유통업 지원
민자유치	관광개발 투자 촉	-투자유치 조직 보강

	진	-행정지원 강화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7대 선도프로젝트	-일부사업 하반기 착수 -제주개발센터 본사 제주 이전
고용	청년실업 해소	-범도민 지원 분위기 조성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연수 지원 -고용촉진훈련 지원
건설경기	건설경기 부양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공공부문 건설공사 상반기 조기 발주 -지역 건설자재 반영 의무화 -각종 건설 사업 추진
	골프장 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의무제(60% 이상) -맨투맨 도우미 제도
	지방세 감면	-미분양 공동주택, 공사 중단된 건축물, 별장
농수축산업	감귤산업 진흥	-감귤 생산기반 조정(간벌, 품종갱신, 하우스시설 확대) -감귤 유통구조 개선(산지유통센터 설치) -감귤 수출지원
	농수축산업 진흥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축산의 친환경 자원화 사업 -수산자원조성 사업 확대
관광객 유치	관광객유치 확대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 및 축제 개발 -한류열풍을 이용한 해외 공격적 마케팅 실시 -관광전문기구 설립 및 제주 Welcome Center 건립
	스포츠산업 활성화	-전국·국제 스포츠대회 개최(국내외 75대회 32만명 유치) -외국인 골프관광객 유치(외국인 우선예약제도 도입)
	지역항공사 설립	-자본금 400억원의 제3섹터 방식 -80인승 규모 항공기 5대, 3개 운항노선, 현행 요금의 70% 수준
	회의산업 활성화	-회의·전시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고품질 고부가가치 회의·전시 관광객 유치

## 2. 중장기 정책방안

### 1)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기업이 가치창출과 고용창출의 원천이므로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들의 본사나 사업본부를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행정·재정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의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들 수립해야 할 것이다.

(주)다음의 제주유치는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교가 공동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역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향후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주)다음 본사의 제주 이전이 완결될 수 있도록 혁신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며 제주도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BT분야에서도 스타기업의 제주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 전체 사업자 41,756개중(2000년 기준) 100명 이상의 종사자수를 보유한 업체는 109개사로 전체의 0.26%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제주도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해외기업들이 최종투자국을 선정할 때는 1단계에서 시장의 규모, 원자재의 접근성, 숙련인력의 가용성 등 시장의 근본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2단계에서는 조세 및 각종 유인책을 고려한다. 제주의 비즈니스 환경은 우리의 경쟁 상대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푸둥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불리하고 이들 국가들의 법인세율도 각각 16%, 15%, 22%의 단일세율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따라서 제주의 지역경쟁력 현주소를 고려한 거시적 관점이나 기업의 투자행위를 고려한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국제 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투자 유인책 제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지역혁신체제의 활성화

강소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작지만 강한 강소지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산업이 육성되어야 하며, '분업과 협업'으로 기동성을 창출하는 범사회적 네트워크인 지역혁신협의회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지역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평균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제주지역의 혁신역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5-2> 제주지역의 주요 혁신역량지표(인구 만명당)

구분	연구비 (백만원)	연구원	기자재 (`03.8)	특허출원	SCI 논문 발표	벤처기업수	국가 R&D (백만원)
전국	3,306	37.1	391.2	4.5	2.6	1.8	854
제주	641	12.2	221.5	0.7	0.9	0.3	228

### 3) 신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제주도는 잃어버린 제주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21세기 제주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는 BT 산업 및 IT 산업을, 제주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21세기 신산업으로는 청정에너지 산업을 선정하고, 이러한 산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표 5-3>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지식기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신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추진사업 및 기대효과

분야	추진사업	기대효과
BT 산업	제주 Bio-Science Park 조성 (`02-`07, 557억원)	-28개 이상의 창업기업 보육, 25개 내 외의 R&D형 기업유치 700여명 고용창출(`07년까지)
	제주 생물 중 다양성 연구소 설립(`04-`09, 250억원)	-200여명 고용창출(`09년까지)
IT 산업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04.8-`06.7, 100억원)	-연간 10% 관광객 증가 -연간 780억원 관광 수입 증가
	(주)Daum 본사 제주 이전 지 원(최고 104억원)	-6,869억원 소득증대, 직접고용 1,000 명, 68,000명 인구 유입(`14년까지)
	IT 협동연구센터 설립 지원 (6억원)	연간 IT 전문 인력 1,000명 양성

벤처기업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04-08년, 300억원)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 환경 조성
청정에너지	풍력발전단지 조성 ('97-'11년, 7298억원)	-'11년 전력판매액 350억원 예상
	그린 빌리지 조성 (4개 지역 3000호, 104억원)	-청정이미지 제고 -관광상품화

## 제 2 절 금융활성화 방안

### 1. 금융시스템 효율성 제고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금융 산업 개편과정에서 지방금융기관이 대거 퇴출되어 지방 금융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증분석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금융이 불변GRDP를 선도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지방금융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신용이 창출되는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근본적 처방이다. 즉, 신용 공급자인 금융기관들이 신용 수요자인 경제 주체들의 신용정보를 공신력 있게 조사·평가·심사·보증하여 신용에 걸맞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가 지역금융의 건전성과 활로를 보장하는 방도이다.

#### 1) 기업정보센터 등 신용조사기능 강화

지역기업 및 가계에 대한 신용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용조사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신용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검증된 지역 중소기업과 개인은 신인도 제고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신용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지역내부 차입자에게 신용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개인 및 기업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여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 및 유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 및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실적, 각종 공과금 납부실적,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 등을 금융기관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카드결제, 어음결제 실적 등 금융기관 상호간의 신용체크시스템을 공유하는 방안도 있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의 정보누출에 따른 부작용을 기술적·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신용조사기관 또는 지역기업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역내 기업의 각종 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지역기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업 신용정보 수집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내 우량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할 것이다.

## 2) 신용평가 기능 강화

신용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평가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대 전문 신용평가 기관이 있으나 주로 회사채 발행능력이 있는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는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소규모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인력과 인프라의 한계로 신용평가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신력을 확보하면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규모 지역금융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많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소규모 지역금융과의 신용조사와 평가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우 중앙회 조직에서 신용평가와 위험관리 기능을 일괄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금액 이상의 여신에 대하여 단위 조합(금고)이 중앙회에서 조직한 부서에서 평가를 받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여건이 허락할 경우 지역 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신용평가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신용보증기능의 효율적 운영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지방경제 활성화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러한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제도는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보증해 주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과 지역 신용보증조합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지역 신용보증조합은 기본재산 규모와 보증능력을 감안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소액 보증에 특화하는 것이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조합이 공동으로 보증 총액제를 도입하여, 동일 기업에게 중복으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강구할 수 있다.

## 2. 지역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전문화·차별화

제주지역 금융은 실물경제의존형의 구조로 실물경제의 성장에 따른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발전해 왔으며, 자생적 성장 및 산업선도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 경제의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제주 경제 발전계획에 따라 핵심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실물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선도(supply-leading)기능을 강화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에 따른 금융수요를 충족함과 함께 실물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선도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실증분석에 따라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전기·가스·수도업부문은 금융이 산업선도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성장을 촉진시키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업, 기타 서비스업은 자생적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1) 틈새시장의 확보(지역 밀착기능 강화, 금융서비스 차별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존한 지역금융기관의 경우 지역 밀착기능의 강화와 금융 서비스의 전문화·차별화를 통해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밀착 경영강화,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금융서비스의 전문화·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은행과 상호신용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간에 자금이체 등 공동업무 체제를 구축하고, 신용분석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금융기관간

기업 정보 공유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점이 한 빌딩에 모여 있는 금융프라자를 구축하여 지역금융센터로 육성하여 금융간 업무제휴를 활성화하여 상호중개(cross-selling)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지역고객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신용금고, 조합형 금융기관 등 중소기업 및 서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이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인 등에 대하여 예금 대납업무 등 현장 밀착적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은행권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고위험 고수익 여신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밀착경영을 통하여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의 선호에 맞춘 다양한 수신 및 여신 상품 개발도 강구할 수 있다.

## 2) 제주경제 발전전략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제주 지역의 금융은 지역의 주민, 기업 및 지자체 등 지역의 금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개발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수신의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개발 및 지역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즉, 관광단지, 위락시설 조성 등 지방자치 차원에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지자체, 전국형 기업 및 지역중소기업, 지방금융기관이 컨소시엄형태의 제3섹터 방식의 추진을 활성화해야 하고, 단순한 자금제공에서 벗어나 차입기업의 경영건전성을 자금공급 이후에도 관리하여 지역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금융기관 및 지자체의 공동출연으로 벤처펀드(venture fund)를 조성하여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관광관련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성이 있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 육성산업에 있어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하여 협조융자(syndicated loan)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확충에 참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금 확충을 위한 지방채발행에 참여하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완화하고 지방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채의 기채대상 사업범위 확대 및 발행금리 현실화 등으로 지방채 시장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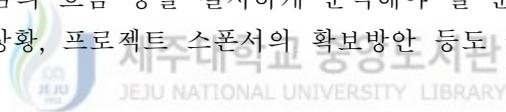
## 3)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의 활성화

프로젝트 금융이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전통적인 금융으

로서의 재원의 조달이 어려운 사회간접자본(SOC)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신 금융기법을 가리킨다. 즉, 특정 프로젝트를 모기업과 독립적인 사업으로 설립하여 그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조달하여 자본설비를 완공한 후 일정기간 당해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채무상환 및 지분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금융방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조달되므로 사업주의 위험은 그가 출자한 지분한도 내에 국한되어 출자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지방은행에게 민·관·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금융의 주관사 은행의 역할을 담당시킴으로써 재원조달에서부터 부채상환에 이르는 총괄적 금융기법,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및 조정 등 사업에 관련된 일련의 know-how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은행의 사업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프로젝트 금융은 종래의 금융기법과는 전혀 다르다. 종전에는 담보대출이 주류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주로 채권보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실적이나 추정 재무제표는 간단히 처리하였으나 프로젝트 금융은 수익성과 자산의 구성, 재원조달에서 부채상환에 이르는 자금의 흐름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의 회피 방안, 각종 계약의 상황, 프로젝트 스폰서의 확보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지방금융이 현재의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방금융과 지방경제의 상호연관성을 실증분석을 하고 지방금융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불변GRDP와 예금은행의 대출금을 자료로 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광주, 경남은 대출금이 불변GRDP의 원인변수로 10% 또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냈고 불변GRDP의 충격에 의한 대출금의 반응이 대출금의 충격에 의한 불변GRDP의 반응보다 큼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외에 많은 지역들도 대출금이 불변GRDP의 원인변수는 아니지만 불변GRDP 충격에 의한 대출금의 반응이 대출금 충격에 의한 불변GRDP의 반응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공급선도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융발달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제약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실물경제에 강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제주지역에서는 1985년에서 2003년까지의 산업별 불변GRDP와 산업별 대출금을 자료로 VAR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농림어업, 운수업은 산업대출금이 산업GRDP의 원인변수가 되어 대출금 충격에 의한 산업GRDP의 반응이 산업GRDP 충격에 대한 대출금의 반응보다 더 컸다. 이는 금융이 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산업선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업은 산업GRDP가 대출금의 원인변수가 되고 산업GRDP 충격에 의한 대출금의 반응이 대출금 충격에 의한 산업GRDP의 반응보다 큼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Patrick의 주장과 같이 실물경제가 발전되지 못하면 금융이 제 기능을 못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므로 금융이 이들 부문의 자생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전국을 금융발전을 유도해야 하는 지역과 경제발전이 금융을 선도해야 하는 지역으로 실증적으로 구분해 보았고, 제주지역에서도 금융이 산업을 선도해야 하는 부문과 산업이 금융을 선도하는 부문으로 실증적으로 구분해 보았으며, 제주지역의 실물경제와 금융에 관한 관계의 실증분석을 처음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예금은행 뿐만 아니라 비예금은행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고, 대출금 이외에도 구매력 측면과 잠재력 측면을 고려한 변수들을 추가해서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기춘, 제주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안 한국은행 제주본부·제주발전연구원 주최 2005년 지역경제세미나 자료
- 강기춘, 산업별 생산변동에 있어서 총체적 충격과 부문 충격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 1994년 12월, 제주대 논문집
- 강기춘, 다부문 실물경제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 1993년 12월, 제주대 논문집
- 강기춘, 구조VAR모형을 이용한 고전적 이분법에 대한 실증분석, 1996년8월, 사회발전연구
- 구재운, 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3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구재운, 금융과 성장: 지역간 연구 [지역연구] 12(1), 1996.
- 구재운, 김희순, 한국의 지역 신용경로 [한국경영경제분석] 1(1) 2001.
- 구재운·문호성, 한국의 지역금융시장, 2003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구재운, 지역금융과 지역생산에 관한 문헌고찰, 2002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국토연구원, 지방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01년 6월
- 김재훈,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금융의 역할: 대출규모의 개선을 중심으로,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보, 제주지역 특화산업의 분석, 사회발전연구 제15호. 1996년
- 김한아, 금융자유화 및 금융발달과 경제 성장의 관계, KDIC 금융연구 제4권 제2호
- 김현아,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소고, 2003년, 재정포럼 2003년 1월호
- 김현의, 통화정책의 과급효과에 관한 새로운 시각 [경제분석] 1(1), 1995.
- 김현정,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 위축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금융현실과 금융효율화를 위한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구조조정이후의 지역금융의 활로, 1997년 7월, 삼성경제연구소
- 이병윤,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정보축적의 역할을 중심으로 2000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이병윤,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 조정이 우리나라 은행산업경쟁도에 미친 영향, 2003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진병용,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금융, 2001년, 대은경제리뷰
- 전창완, 지역금융시장에서 신용중시론의 의의와 금융시장의 지역적 특징, 1999년, 한국지역사회학회 정기 학술대회

- 통계청, 지역경제동향, 2004년 2월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3년 1월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4년 8월
- 한국은행 제주본부, 도내 밀착형 금융기관의 현황 및 시사점, 2002년 12월,  
한국은행 제주본부
- 한국은행 제주본부, 한국은행제주본부 2002년 조사연구자료 모음집, 2003년 2월,  
한국은행 제주본부
-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지역 경제동향, 2004년 3월
-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지역 경제동향, 1999년 11월
- Bias, Peter V, "Regional Financial Segm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3, 1992.
- Dickey, D. A. & W. A. Fuller, Distribution of the Estimators for Autoregressive, Time Series with a Unit Root,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979.
- Dow, Sheila C, and Carlos J, Rodriguez-Fuentes, "Regional Finance : A Survey", *Regional Studies* 31, 1997.
- Engle, R. F. & C. W. J. Granger,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1987.
- Engle, R. F. & B. S. Yoo, "Forecasting and Testing in Cointegration Systems", *Journal of Econometrics*, 1987.
- Faini, Ricardo, Giampaolo Galli and Curzio Giannini, "Finance and Development: The Case of Southern Italy", Finance and Development : Issue and Experience edited by Alberto Giovannini,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Fuller, W. A. *Introduction to Statistical Time Series*, (John Wiley and sons), 1976.
- Granger, C. W. J & W. K. Newbold, "Spurious Regressions in Econometrics", *Journal of Econometrics*, 1974.
- Granger, C. W. J "Investing Causal Real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 - Spectral Models", *Econometrica* 37, 1969.
- G. Rains, "Typology in Development Theory : Retrospective and Prospects, "

-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Academic Press. New York, 1984.
- Guiso, Luigi, Paola Sapienza, and Luigi Zingales,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financial development," NBER Working Paper No.7563, 2001.
- Hanson, Sandra J. and Christopher J. Waller, "Empirical Evidence of a Credit Channel Using Regional Data," 1996.
- Johansen, S., "Statistical Analysis of Cointegration Vector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988.
- Johansen, S. & K. Juselius,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nd Inference on Cointegration - with Application to the Demand for Mone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90.
- Jung, W. S.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Evidenc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986.
- Koo, Jaewoon and Sangho Kim, "Finance, Production Efficiency, and Growth : Evidence from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Seoul Journal of Economics*, 1999.
- Kashyap Anil K. and Jeremy C. Stein., "Monetary Policy and Bank Lending," *Monetary Policy*, edited by Gregory N. Mankiw,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King Robert G. and Ross Levine, "Finance and Growth: Schumpeter might be Righ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93.
- Lucas, Robert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88.
- Mckinnon, R. 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 C. 1973.
- Patrick, Hugh T.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4, 1966.
- Phillips, P. C. "Understanding Spurious Regressions In Econometrics", *Journal of Econometrics* 33, 1986.
- Samolyk, Katherine. A., "Banking Conditions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 Evidence of a Regional Credit Channel."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4, 1994.

- Schumpeter, Joseph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1911
- Shaw, E. S.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Sims, C. A. "Comparison of Inter war and Postwar Business Cycles : Monetarism Reconsidered." *American Economic Review* 70, 1986b.
- Stock, J. H. & M. W. Watson, "Variable Trends in Economic Time Ser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88.



## Summary

# A Study on the Regional Economy and Finance of Jeju

by Kim, Eun Hy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In Korea the economic imbalance among regions has been dealt as a issue which must be solved for a long time. Especially the regional economic imbalance is deepened after the economic crisis which the foreign exchange shortage set off in the end of 1997. Above all the socio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other provincial regions is pointed out as the most serious problem of inter-regional imbalances.

Under this standpoin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regional economy and suggesting the policies and programs for promo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provincial region with focusing on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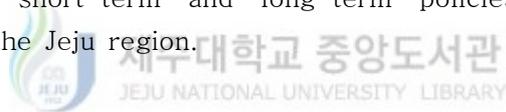
In the part of the general comparisons of economic states among region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gap of Gross Economic Capacity (GEC)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provincial region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1997's economic crisis. This is principally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high income opportunities, banking businesses, and the sound local financing, etc. in the capital regions. The gross economic capacity (GEC) is the analytic tool that grossly indicates the regional levels of production, employment, banking service, public finance, export, etc. Second, the GEC of Jeju region has been decreasing since the 1997's economic crisis and dwindling owing to the shrink of economic services such as banking and distribution.

We are empirically examin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regional loan shock in explaining regional GRDP fluctuations using 15 regional product from 1985 to 2003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ovincial regional GRDP shock in explaining regional loan fluctuations using 15 regional loan from 1985 to 2003.

After testing the existence of a unit root and cointegration relation, the VAR model is estimated. Granger causality tests show that GRDP in Gwangju and Gyeongnam is affected loan. In other word, the loan shock plays some role in explaining GRDP fluctuation.

Also we are empirically examin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ctoral loan shock in explaining sectoral output fluctuations and sectoral output shock in explaining sectoral loan fluctuations using 8 sectoral output and loan of Jeju from 1985 to 2003. Granger causality tests show that agriculture and transport storage industry are affected loan but the loan of restaurants and hotel industry and finance industry are affected output.

We suggest the short-term and long-term policies for improving the economic state of the Jeju region.



<부록 표 A-1> 지역별 GRDP (불변가격)

단위 : 10억원

연도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85		200,387.1	52,411.3	14,430.7	8,779.5	9,293.5			30,010.4	8,190.7	14,241.6	8,047.2	5,881.7	13,862.0	14,484.1	18,686.4	2,068.1
86		226,970.3	59,165.6	16,408.9	10,042.5	10,713.3			35,027.0	9,103.7	15,846.5	8,792.7	6,403.1	15,808.5	16,387.7	21,093.9	2,176.8
87		253,911.2	66,206.2	18,467.6	11,375.0	12,064.8	5,236.5		40,202.4	9,714.7	12,913.8	9,700.0	7,046.2	17,106.3	17,939.1	23,507.8	2,430.9
88		280,033.5	72,609.8	20,164.3	12,459.3	13,447.4	6,140.7		45,015.5	10,861.2	14,233.1	9,885.8	7,847.3	18,930.1	19,460.4	26,316.5	2,662.1
89		304,678.8	80,269.0	21,096.1	13,240.1	14,836.5	6,710.2	7,581.8	48,227.3	11,317.2	15,200.1	10,845.3	8,999.0	14,393.1	20,917.1	27,970.6	3,175.4
90		332,274.1	88,925.8	23,235.5	14,538.0	16,366.4	7,840.1	8,366.2	58,665.4	11,763.6	16,329.0	11,067.8	9,540.0	14,900.6	21,728.0	30,770.9	3,236.6
91		365,568.4	96,072.9	24,861.5	15,368.2	18,290.1	8,398.8	9,465.1	61,778.4	12,851.4	18,090.7	11,512.7	10,655.0	16,222.4	23,633.1	34,736.7	3,631.3
92		391,359.4	104,103.8	25,798.5	16,270.4	19,214.2	9,048.7	10,431.3	66,299.6	13,571.9	19,537.0	12,122.3	11,603.1	17,802.5	24,856.8	36,645.2	4,059.0
93		413,370.9	111,837.8	26,716.0	17,055.7	20,114.3	9,670.3	11,159.4	70,986.6	14,274.0	20,265.9	12,695.9	12,764.7	18,860.8	25,362.0	37,543.4	4,114.4
94		450,849.1	120,246.3	29,003.3	18,582.2	21,819.4	10,304.9	11,373.9	77,819.6	15,596.8	22,211.2	13,638.9	13,810.3	21,171.7	28,242.9	42,331.9	4,385.8
95		485,493.6	127,110.7	32,500.6	20,364.9	25,247.4	11,386.9	11,617.8	85,755.7	16,819.5	23,929.5	14,800.7	15,153.9	20,941.6	29,586.0	45,360.7	4,917.7
96		516,296.5	130,859.4	34,107.6	21,488.3	26,536.9	11,995.8	12,313.4	90,849.4	18,053.8	25,900.5	15,991.6	16,755.2	20,941.6	32,063.8	50,234.0	5,165.8
97		536,326.1	133,742.6	34,022.9	21,598.1	27,298.4	12,353.7	12,890.1	94,045.2	19,105.4	27,858.1	16,715.1	17,828.2	23,982.0	34,022.1	53,650.7	5,325.0
98		486,246.1	121,450.1	29,716.9	18,535.1	22,201.6	10,541.3	11,815.3	88,965.8	16,441.8	25,294.4	14,718.3	15,771.2	25,870.6	30,853.0	32,859.4	4,729.7
99		534,692.6	127,750.3	32,100.2	19,521.1	24,691.4	11,575.9	12,619.8	99,613.4	18,099.9	26,078.6	15,391.4	18,010.1	23,504.3	35,124.9	35,921.7	4,885.3
00		577,970.9	138,492.3	33,839.8	20,776.3	26,230.7	12,628.8	13,559.0	111,793.5	18,977.8	26,907.6	16,462.2	19,521.4	26,834.7	38,454.7	37,728.4	5,289.5
01		600,932.2	143,087.8	36,091.4	20,808.9	27,427.3	13,007.7	14,053.5	117,654.6	19,298.1	27,621.8	16,391.1	19,531.2	29,787.6	40,976.7	41,083.9	5,691.7
02		647,259.4	154,503.1	37,884.5	21,683.8	29,952.2	14,171.6	14,935.4	130,221.0	19,909.6	28,613.5	17,216.5	21,042.7	32,430.4	44,073.9	43,066.3	6,003.0
03		668,502.3	154,943.9	39,579.8	22,120.8	30,788.2	14,271.6	16,026.4	133,648.7	20,918.9	29,400.6	18,449.2	21,817.7	34,877.8	47,305.3	45,518.0	6,193.8

주)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부록 표 A-2> 지역별 대출금

단위 : 10억원

연도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85		33810.7	21384.8	2622.0	1398.9	771.9			1484.5	832.2	667.7	493.2	448.2	445.5	764.5	1156.8	244.0
86		39098.6	25189.9	2755.3	1522.2	889.8			1793.3	884.9	748.3	539.9	505.4	517.9	903.8	1449.7	249.3
87		43095.8	26105.8	3300.3	1728.5	1055.6	635.2		2316.6	1048.1	1009.8	648.1	627.7	693.9	1147.2	1883.6	278.6
88		48805.4	28198.7	3752.7	2097.9	1327	794		2973.2	1234.4	1220.1	743.3	750.9	866.3	1454.4	2310.8	322.1
89		62547.8	35117.6	5069.5	3012.1	1836.8	1076.5	998.7	3989.6	1590.5	1569.9	891.6	983	1086.7	1857.6	3058.8	409.1
90		74028.6	38584.5	6286.7	3881.5	2451.9	1514.7	1369.6	5519.9	1963.8	1925.9	1099.9	1223.4	1337.1	2309.1	4048.4	512.4
91		89415.6	45605.6	7531.5	4667.2	3066.6	1981.1	1715.4	7066.3	2359.8	2272.6	1323.5	1516.4	1620.2	2850.1	5209.2	630.1
92		102797	52165.4	8149	5353.2	3641.8	2298.7	2118.6	8424.3	2692.4	2565	1625	1823.6	1947.3	3411.6	5833.3	747.8
93		115137.4	54402.5	9061.3	6515.2	4418.7	2705.7	2569.4	10745.9	3254.1	2987.1	2061.2	2169	2293.4	4101.6	6952.3	899.9
94		135850.3	63761.1	10247.4	7816	5139.3	3309.4	3104.8	13415.3	3842.4	3403.2	2422.6	2522.2	2645.1	4880.3	8301.7	1039.5
95		152477.7	68415	11540.5	9229.3	6076.4	3907.1	3539	16003.3	4431.5	3928.8	2895.4	2943.4	3160.4	5497.1	9694	1216.6
96		177184.1	78820.3	12990.9	10777.9	7065.6	4512	4106.9	19787.7	5143	4564.6	3290.8	3450.1	3598.6	6297.1	11342.7	1435.9
97		200401.1	89012	14200	11756.3	8199.1	4858.9	4676.6	23627.1	5844.3	5172.3	3809.2	3966.7	4024.5	6946.7	10098.1	1722.4
98		200289.1	91918	12916.7	11190	7657	4894.8	4287.7	28626.6	5756.6	5351.5	3781.9	3784.1	4005	6906.5	10051.9	1817.3
99		250240.1	113001.9	15558.1	12846.2	9661.2	6416.6	5367.1	33072.6	6931.6	6949.3	4658.8	4518.3	5314.8	8201.8	12336.5	2354.6
00		310804.1	147873.8	18580.7	14103.6	12686.5	6860.4	5739	42236.6	7576.9	8218.6	5304.7	4997.8	6746.1	9665.7	13862.5	2755.5
01		357383.5	159419.6	23265.2	15867.9	16019.4	8164.6	7300.5	55821.6	8582.4	8951.2	6006.8	5726.8	8078.5	10899.3	15707.6	3208.2
02		471684.3	209579.4	31521.9	20764.3	22004.3	10406.1	10482.4	79531	10258.4	10329.6	7424.2	7002.5	9844.1	12823.4	19782.5	3952.6
03		538260.9	236369.4	35958.6	23345	25294.2	12129.8	12114.5	96224.7	11160.4	10233.6	8138.4	7723.3	11459.7	14015.9	22757.3	4496.9

주)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부록 표A-3〉 제주도 산업별 GRDP와 대출금

단위:억원

연도	지역	농림어업	제조업	대출	적기가스 및수도	대출	건설업	대출	도소매·음 식·숙박업	대출	운수,창고, 통신	대출	기타사회 서비스업	대출	금융업, 부동산	대출
85		7,185	720	741	129	245	1,511	274	1,465	331	1,361	113	1,014	730		
86		7,238	843	793	145	265	1,520	175	1,619	291	1,381	105	1,142	853		
87		7,813	916	1074	169	261	1,981	139	2,029	275	1,641	105	1,250	922		
88		7,678	1,029	1,168	195	297	2,448	188	2,427	410	1,958	105	1,426	1,017	3,240	31
89		10,048	1,248	1,329	226	418	3,092	315	2,636	523	2,247	113	1,742	1,329	3,645	44
90		8,105	1,160	1,742	247	559	4,012	356	3,227	672	2,660	118	1,843	1,605	3,869	56
91		8,991	1,248	2,087	272	691	4,346	476	4,016	810	2,911	125	1,941	1,985	4,496	64
92		10,675	1,337	2,472	283	868	4,525	564	4,349	872	3,253	133	2,173	2,480	4,829	75
93		9,535	1,354	3,091	341	1,019	4,581	685	4,564	968	3,355	138	2,538	3,469	5,369	98
94		8,988	1,431	3,632	377	1,190	4,742	873	5,491	1,071	3,412	149	2,770	4,050	6,616	79
95		10,371	1,387	4,459	402	1,258	4,971	1,784	6,849	1,239	3,732	181	3,882	4,119	6,738	57
96		9,258	1,348	5,342	355	1,314	5,428	1,916	7,498	1,363	4,307	227	4,541	4,982	7,444	166
97		9,790	1,301	6,500	496	1,404	5,830	1,991	7,686	1,538	4,193	299	4,354	6,191	7,799	266
98		9,043	1,182	7,330	484	1,519	5,205	1,912	5,408	1,736	3,817	278	4,916	6,043	7,334	320
99		10,380	1,399	8,911	507	1,734	5,525	1,177	5,969	3,038	3,231	335	3,322	7,759	7,618	558
00		10,294	1,472	9,573	577	2,111	5,936	1,346	6,898	4,029	3,743	406	4,225	9,355	8,008	686
01		10,916	1,524	9,357	758	2,167	6,050	1,395	7,551	5,033	3,860	401	5,475	12,913	8,382	750
02		11,069	1,541	9,037	677	2,218	5,998	2,105	7,978	6,427	4,330	478	5,374	17,982	9,750	1,241
03		11,237	1,699	9,762	720	2,380	6,685	2,700	8,197	7,137	4,246	566	5,118	20,505	10,012	1,876

주) 자료 : 한국은행 정기 간행물 (2004.2) (1999.1), 한국은행 제주본부